

선산부사-통제사종사관 정경달의 임진왜란에 대한 기록과 기억

박 군 섭*

- I. 머리말
- II. 『반곡난중일기』: 임진왜란에 대한 기록과 기억
 - 1. 선산부사 재임 시의 활약
 - 2. 통제사종사관 재임 시의 활약
 - 3. 남원부사~청주목사 재임 시의 활약, 그리고 낙향
- III. 유교지식인의 국가·사회적 책임
- IV. 맺음말

국문초록

정경달의 삶과 삶의 세계에 대한 연구는 수기치인과 입신양명을 본질로 삼는 유교적 공부론을 정밀 판독하는 힘이 될 수 있다. 정경달이 1592년의 임진왜란 당시 선산부사로 있으면서, 그리고 이어지는 삼도수군통제사 종사관으로 있으면서 전란을 수습하고 대응했던 활약상은 유교지식인의 국가·사회적 책임의 문제를 역동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었다. 정경달은 『반곡난중일기』를 통해 임진왜란 관련 활동궤적 및 내면심리를 기술하였으며, 당시 직·간접 연관 인물로 이순신, 나대용, 유성룡, 이

* 경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kspark@knu.ac.kr

덕형, 이원익, 이항복 등을 등장시키면서 국가적 수습책과 대응책을 제시하였다. 우리는 정경달의 임진왜란 관련 역사 기록과 기억의 끊임없는 재구성을 통해 유교지식인의 국가·사회적 책임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성찰할 수 있어야 한다. 임진왜란 이래, 한국사회의 대내외적 위기와 갈등의 현실 앞에서 이를 제대로 해석·대응·기억하지 못했던 역사가 우리의 뒤틀린 인식을 주도해온 것은 아닌지를 반성할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경달의 임진왜란에 대한 기록과 기억을 통해 정작 경각심을 가져야 할 점이 있다면, 그것은 국가·사회적 책임에 대한 고민과 성찰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 주제어

정경달, 이순신, 나대용, 『반곡난중일기』, 국가·사회적 책임

I. 머리말

盤谷 丁景達(1542~1602)은 전라도 장흥에서 태어나 1570년(선조 3) 경오식년시 문과에 급제(丙科 20위)하였다. 정경달은 임진왜란 중에 선산부사, 통제사종사관, 남원부사, 오위장-접반사-영위사, 청주목사를 지내면서 7년 전쟁 관련 기록을 『반곡난중일기』를 통해 남겼는데 이는 유교지식인 정경달의 삶과 삶의 세계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기록이기도 했다. 정경달이 청주목사를 끝으로 관직에 나아가지 못했던 것은 당시 국가권력의 전쟁을 기억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음을 드러낸 것이기도 했다.

유교지식인의 난중일기라면 이는 응당 민본사상의 구현 과정, 의병활동의 전개 과정 등을 기록으로 담아내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정경달과 이순신의 인연을 새기면서 두 난중일기를 비교해서 논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경달의 『반곡난중일기』에 대해 정약용은 겨우 그 고생한 것이나 설명하고 그 공로만을 드러내어 자손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기록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물고기도 놀라고 산짐승도 도망간 상태라든가 비바람을 맞으며 들에서 밥해 먹고 밤을 지새우는 고초에 대해 기록하여 장차 국가에 경계사항을 제시하고 후세에 귀감을 남기려는 뜻에서 작성한 기록이라고 평가하였다.¹⁾

『반곡난중일기』의 시계열은 ① 선산부사(1592.4~1593.9), ② 통제사종사관(1594.4~1595.1), ③ 남원부사(1595.2~1595.11), ④ 오위장-접반사-영위사(1597.3~1598.4), ⑤ 청주목사(1598.6~1599.1), ⑥ 낙향(1599.1~1602.12)의 순으로 제시되었다. 그동안 정경달에 관한 연구는 주로 ①(선산부사)과 ②(통제사종사관)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²⁾

1) 『與猶堂全書』, 詩文集卷14, 「題盤谷丁公亂中日記」.

2) 김경숙, 「임진왜란 초기 지방관의 수도활동: 선산부사 정경달 형제의 활동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65, 2013, 131~162쪽; 박종우, 「반곡 정경달의 한시 연구: 주제의 특징적 국면을 중심으로」, 『남도문화연구』 32, 2017, 207~227쪽; 김형수, 「임란 직후 선산지역 여헌학단의 활동」, 『남도문화연구』 38, 2019, 143~172쪽.

임진왜란 관련 <창의록>(『溪陰集』, 卷6, 「倡義錄」)이나 <충의전>(『研經齋全集』, 卷61, 「督府忠義傳」)의 분류법 역시 이를 따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①과 ②에 대한 논의의 심층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보더라도 ③(남원부사), ④(오위장-접반사-영위사), ⑤(청주목사), ⑥(낙향)으로 이어지는 전체적인 상황 전개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③~⑥의 상황은 정경달의 삶과 삶의 세계, 그리고 유교지식인의 국가·사회적 책임의 문제를 전체적으로 포착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정경달의 임진왜란 기록과 전쟁사 관련 일반기록에 대한 교차 검토를 통해 조선 시대 선비, 유교지식인의 국가·사회적 책임의 문제를 보다 실질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II. 『반곡난중일기』: 임진왜란에 대한 기록과 기억

1. 선산부사 재임 시의 활약

1592년(선조 25) 4월 13일에 발발한 임진왜란에 관한 실록기사는 “왜구가 쳐들어왔다[倭寇至]”는 말로 시작한다. 왜군은 1592년 4월 24일에 상주를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문경새재를 돌파했다. 하루 뒤인 4월 28일에 충주 탄금대 전투가 벌어졌으나 신립 장군은 충주를 지켜내지 못했다. 충주 소식을 전해들은 선조는 서울을 버리기로 결심했다. 선조가 도성을 버리던 날, 도성의 백성들이 맨 먼저 내탕고에 들어가 보물을 다투어 차지했고, 장예원과 형조에 불을 질러 공노비·사노비 문서를 불태워 없앴으며, 궁궐과 관청의 창고를 뒤지고 불을 질러 도둑질한 흔적을 없앴다.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의 세 궁궐이 일시에 잿더미가 되었으며 각종 서적, 실록, 사초, 일기 등도 남김없이 불에 탔다.³⁾

3) 『선조실록』 1592년 4월 13일; 『선조수정실록』 1592년 4월 14일. 임진왜란 발발 직후 전라좌도 수군절도사 이순신이 처음 왜군을 격퇴하기 위해 출전한 날은 전쟁이

『선조실록』 1592년 6월 28-29일조에 의하면, 김수는 경상좌도-우도에 걸친 성주, 개령, 선산, 상주, 문경의 상황을 보고하면서 “성주목사 李德悅은 왜적이 성주성에 웅거하고 있는데도 성주의 지경을 떠나지 않고 있었는데, 판관 高暉은 젊은 무부로서 홀로 먼저 도피하였으며, 개령 현감 李希伋, 선산부사 丁景達, 상주목사 金漈, 판관 權吉, 문경현감 申吉元 등은 모두 다 도망가 숨어 적이 가는지 머무는지를 일체 달려와 보고하지 않았다”는 내용과 함께 이들을 “속히 나와서 임무를 살피도록 독려할 것”을 주청하였다.⁴⁾ 선산부사 정경달은 도망자라는 얘기였다.⁵⁾ 이는 서쪽으로 평양에서부터 남쪽으로 부산에 이르기까지 도중의 수령들이 도망가 숨는 형국에서도 정경달은 “도내의 수령 가운데 끝까지 자신의 관할 지역을 지킨 자”로서 “줄곧 선산부 경내에 있었다”는 증언과는 결을 달리하는 얘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⁶⁾

1592.05.16.⁷⁾ 임금의 大駕가 서쪽으로 파천했다는 소식을 들었는지라, 군사

일어난 지 무려 3주나 지난 1592년 5월 4일 새벽이었다. 길으로 드러난 상황을 놓고 보면 이순신이 출전을 미룬 모양새가 되었지만, 이순신이 출전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출전을 미루었다고 하는 말은 정확한 얘기가 아니다. 전쟁 발발 직후 이순신의 전쟁대응을 둘러싼 논란, 그 변주에 대해서는 정해은, 「임진왜란 발발 직후 이순신의 전쟁대응에 대한 검토: 1차 출전 과정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83, 2017, 55~87쪽 참조.

4) 『선조실록』 1592년 6월 28일, 29일.

5) 선산의 경우 정경달은 『반곡난중일기』에서 백성들의 자신에 대한 시선을 긍정적으로 묘사하였으나 적어도 임진왜란 초기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해 이를 보는 지방 사족이나 백성들의 시선은 차가웠다. 이처럼 전란 발생 초기 수령들의 실책이 있었으나 대체로 1592년 7월 이후에는 복귀 및 전열 재정비에 나섰다. 정해은, 「임진왜란 초기 경상도 수령의 동향과 의병 지원 활동」, 『조선시대사학보』 70, 2014, 133~168쪽; 박인호, 「임진왜란기 구미 지역의 사족 동향과 의병 활동」, 『국학연구』 30, 2016, 369~410쪽.

6) 『반곡난중일기』 1592년 12월 29일, 1593년 5월 14일.

7) 이하 인용문단을 통해 『반곡난중일기』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시작부분에 연월일만을 표기한다. 예컨대 “1592.05.16.”은 “『반곡난중일기』 1592년 5월 16일자”를 일컫는다. 원문 확인은 『盤谷遺稿』, 卷7, 「亂中日記一」, 『盤谷遺稿』, 卷8, 「亂中日記二」, 『盤谷遺稿』, 卷9, 「亂中日記三」(이상은 盤山丁景達著, 洸水丁鏞刪, 橘園尹峒校), 『盤谷遺

를 모집해 1,000여 명을 모아 金烏山 아래에 진을 쳤다.……이날 선산부의 왜적 100여 명이 와서 진을 쳤는데, 붉은 옷을 입은 한 장군이 군진의 뒤에 의자를 설치하고 앉았다. 아군들이 곧바로 쳐들어가니 왜적들이 놀라 달아났다. 왜적 7명의 머리를 베었으나, 아군 1명도 피살되었다.

1592.05.17.: 아침에 또 진을 치고있는데, 왜적 100여명이 와서 진을 치고는 붉은 옷을 입은 자가 또 의자에 앉았다. 왜적 1명이 조총을 들고 우리 진지 앞으로 곧장 달려들다가 큰 소나무에 기대어 총을 쏘았는데, 탄환이 내 앞에 떨어졌고 암석이 홀연히 갈라졌다. 왜적이 長蛇陣法을 펼치면 우리도 장사진의 형세로 만들고, 왜적이 鶴翼陣法을 펼치면 우리도 학익진의 형세를 만들었다.

실록 기사의 기술(1592.6.28.-29.)과 달리 이미 정경달은 1592년 5월 16일~17일에 왜적을 향해 공격하는 등의 전투태세를 취하고 있었다. 이를 도망이라고 말하기 전에 당시 그 상황에서 어떤 또다른 대처방법이 있었을까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고, 그 상황 속에서 왜적에 대응하는 정경달의 활동궤적은 어떤 방향성과 연속동작을 보였는가를 두고 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약용은 왜적을 막는 일에 대해 “지키기만 하고 공격하지 않는다면[守而不攻] 이는 왜적을 임금에게 다가가도록 내버려두는 격[是以賊而遺君也]”이라면서 추격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는데, 이는 선산부사 정경달의 왜적 공략법에 대한 평론적 성격을 띤 지적인 동시에,⁸⁾ 선산부사 정경달이 임진왜란 당시 왜적의 통과 지점, 요해처를 지켰던 심정이 딱 그러한 마음가짐이었음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⁹⁾

稿, 卷10, 「亂中日記四[丁酉上]」, 『盤谷遺稿』, 卷11, 「亂中日記五[丁酉下]」, 『盤谷遺稿』, 卷12, 「亂中日記六」(이상은 盤山丁景達著, 洸水丁鏞刪, 後孫修七校)에 의하며, 본문 인용은 신해진 역, 『반곡 난중일기(상·하)』, 보고사, 2016에 의함.

8) 『與猶堂全書』, 政法集卷24, 「牧民心書卷九/兵典六條/兵典第六條/禦寇」.

9) 『與猶堂全書』, 政法集卷24, 「牧民心書卷九/兵典六條/兵典第六條/禦寇」. 정약용에 앞서 霧峯 高敬命(1533~1592)이 「마상의 격문」(1592.5.29.)에서 “왜적이 임금과 부모에게 다가가도록 내버려두는 것은[以賊虜遺君親] 이 어찌 차마 할 일이며[是可忍也], 임금에게 나라의 존망을 근심하게 함이[使至尊憂社稷] 그대들 마음에 편안하겠는가[於汝安乎]”(『霧峯集』, 遺集, 「檄諸道書」)라고 말한 것도 유교 공부의 핵심인 도학·이학·성학·심학의 특징이자 도학사상-절의정신으로 이어지는 근간을 보여준 것이다.

1592.06.02.: 東寨와 海平寨는 강의 동쪽에 설치하였고 西寨와 南寨는 강의 서쪽에 설치하였는데, 왜적이 중간을 막고있고……강물로 엄청나게 불어서 강의 왼쪽에 있는 두 군채(동채, 해평채)에 호령이 통하지 않았다. 경계를 넷으로 나누어 4개의 都廳을 설립하고 각각 將領 1명, 鄉所 1명, 伏兵將 6명, 游擊將 18명을 두었는데, 각기 군사를 거느려 왜적이 오면 피하고 왜적이 돌아가면 진을 치며 혹은 논밭의 곡식을 수습하고 혹은 왜적 낙오병을 포획하게 하였다.

1592.08.05.: 백마를 탄 왜장이 왜군 10여명을 거느리고 西山의 앞들에 와서 굵고 긴 나무를 깎아 세우고는 종이를 걸어놓고 갔다. 즉시 가져오게 하였더니 그 榜文에 이르기를 “선산 전 도호 정경달의 거처는 내 이미 알고있으니, 붙잡아오는 자에게는 金銀珠玉으로 상을 내릴 것이다. 그것이 만약 백성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관속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고관대작을 상으로 줄 것임을 각각에게 알리노라. 天正 21년(20년의 오기: 1592) 8월 5일. 兵部少補 善山新府使 張熙. 협주: 적장이 선산을 쳐들어와 점거하고 스스로 부사라 일컬었다)”고 하였다.

1592.09.17.: 신임감사 김성일이 상관으로서 수령이 자신의 경계를 벗어나는 것을 금하였다. 이날 正字 李竣이 찾아와서 목으며 말하기를 “상주목사는 첩을 거느리면서 소를 잡았으니 갓은 쓰디쓴 고달픔을 겪은 모양새가 아니거늘, 공은 座首가 소 잡기를 청해도 물리치고 상주의 기생이 오랜 정분 때문에 찾아와도 공은 “지금은 옷을 풀고 잠자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물리쳤다는데, 어찌 그리도 고달프게 지낸단 말이오”라고 하였다.¹⁰⁾ 내가 말하기를 “관서 땅에서는 풍상을 겪으면서 임금의 수레가 피난 중에 있는데 신하된 자로서 여색과 함께 즐길 수는 없소”라고 하였다.

10) 유성룡의 제자 李竣(1560~1635)과 정경달이 서로 나눈 대화를 통해 볼 때, 유성룡과 이순신과 정경달의 깊은 인연에는 이준의 역할도 일정정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준은 왜적 토벌에 뛰어난 정경달에게 자신의 의병과 진영을 합치자는 제안을 하였다(『반곡난중일기』 1592년 9월 17일, 10월 4일). 이준은 스승 유성룡에게 올린 글에서 정경달이 『東賢行狀』을 편찬했다는 사실을 알린 바 있다(『蒼石集』, 續集卷4, 「上西厓先生」). 이준이 선산부사 정경달의 근검·신독에 주목한 것은 당시 왜란과 더불어 발생한 대기근의 상황을 유의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1592년 4월 임진왜란 발발 이래 조선사회는 두 차례에 걸쳐 혹독한 대기근을 겪었다(1차: 1592년 겨울~1593년 여름, 2차: 1593년 가을~1594년 봄). 이 기간 동안 양식 부족, 면역력 저하, 전염병 창궐, 아사자와 병사자 속출 등으로 인한 엄청난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 선산이나 인동과 같은 嶺南大路를 끼고있는 경상도 군현들의 경우, 두 차례의 대기근을 겪는 동안 전체 인구의 40% 가량이 사망했고, 거의 같은 정도의 인원이 타지로 이주했다. 김성우, 「임진왜란 시기 구미지역의 참상과 전쟁의 극복양상」, 『역사학보』 230, 2016, 1~37쪽 참조.

정경달은 선산부를 4개 구역(東寨, 西寨, 南寨, 海平寨)으로 나누고 각 구역마다 都廳을 설치하여 작전을 수행하는 四寨戰法을 구사하였다. 강의 동쪽을 2개 구역(동채, 해평채), 강의 서쪽을 2개 구역(서채, 남채) 총 4개 구역으로 나누어 작전을 수행했던 사채전법은 선산부의 지형지물을 활용한 게릴라전의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왜적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전법이였다.¹¹⁾

정경달은 1593년 1월 8일에 포로로 잡힌 두 왕자가 남쪽으로 내려온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상주목사 및 상주 의병장에게 병사들을 매복케 하는 계획을 세우도록 하였고, 호남과 호서 및 경상 좌·우도의 여러 장수들을 합하여 六陣¹²⁾을 결성하였다. 이때 정경달은 八陣大將으로 추대되었고, 선산-상주-함창-문경의 관군 및 선산-상주-함창-산양의 의병

11) 『반곡난중일기』 1592년 6월 2일. 유성룡은 『징비록』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활은 겨우 백 보를 가는 데 비해 조총은 수백 보를 나갔다”고 말하면서, 임진왜란 당시에 “힘준한 산이나 우거진 숲을 적에 앞서 선점한 후에 매복하고 기습할 경우 조총을 가진 적을 무력화시킬 수 있었다”고 아쉬워했다. 신립과 이일이 상주나 충주에서 왜적과 싸울 때 궁수 수천 명을 매복시켜놓고 지형지물(힘준한 숲)을 활용했다라면 적은 우리 병사의 숫자도 파악하지 못한 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견해이다. 이는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 말이다. 신립과 이일은 그와 반대로 오합지졸을 데리고 힘준한 숲을 떠나 평탄한 들판에서 대적했기 때문에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이다(유성룡, 김홍식 역, 『징비록: 지옥의 전쟁, 그리고 반성의 기록』, 서해문집, 2003, 225~226쪽). 『논어』의 문구를 통해 말하자면, 유성룡의 신중함(「臨事而懼」)과는 달리, 신립과 이일은 일을 크게 그르치는 무모함의 대명사(「暴虎馮河」)였음을 알 수 있다(『論語』, 第7, 「述而」). 큰 틀에서 볼 때 사채전법의 운용을 통해 왜적을 무찔렀던 정경달은 유성룡과 동일한 입각점을 취했다고 말할 수 있다.

12) 趙彭年(1549~1612)은 「창의록」에서 정경달이 선산부사로 있으면서 진법을 구사하여 왜적을 퇴치했던 것을 매우 특징적인 장면이라고 보았다(『溪陰集』, 卷6, 「倡義錄」). 육진: 앞길[前路]은 경상좌병사가 左陣이 되고 경상우병사가 右陣이 되며, 뒷길[後路]은 충청좌도가 좌진이 되고 전라좌도가 우진이 되며 중간길[中路]은 경상도 의병이 좌진이 되고 호남과 호서의 의병이 우진이 되게 하였다. 그리고 각기 맡은 지역에서 지키다가 바야흐로 왕자들이 진중으로 들어올 때 前陣이 앞서간 왜적들을 차단하여 뒤따라오는 왜적들을 구하지 못하게 하고, 後陣이 뒤따라오는 왜적들을 차단하여 앞서간 왜적들을 구하지 못하게 한다는 전략이었다. 이때 中陣이 좌우에서 힘을 합해 왕자를 탈환하고자 하면 뜻을 거의 이룰 수가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순찰 사에게 보고하였다(『반곡난중일기』 1593년 1월 8일).

등 八陣의 將領들은 모두 정경달의 지휘를 받도록 하였다. 하지만 경상 좌병사와 우병사가 당도하지 않은 까닭에 미처 육진을 갖추지 못했으며, 정경달이 대군을 이끌고 진을 쳤으나 여러 장수들이 모두 병을 청탁하면서 군관을 대신 보내 장수 노릇을 하게 하였다. 선산과 사채의 군사들이 한 곳에 연합하였지만 군량 공급이 지속되기 어려운데다 육진의 여러 장수들이 오지 않았다. 경상도의 좌병사와 우병사는 나타나지도 않았고, 충청도와 전라도의 여러 군대들은 싸우지도 않고 돌아갔으며 함창과 문경의 관군들도 자진 철수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다.¹³⁾

정경달은 1593년 7월 5일, 유성룡에게 편지를 올려 신병 치료를 위해 관직에서 물러날 것을 신청하였다. 별지에 이르기를 “소생은 온갖 죽을 뻔한 고생을 겪으면서 풍질이 몸을 침범하여 뱃속이 부었고 오랫동안 악혈을 토하니 사람의 물결이 아닙니다. 15개월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관할 지역을 지키느라 끝내 죽어서도 고향[本土]에 돌아가지 못한다면 또한 원통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처음에는 면직 처리가 안 되었으나, 1593년 8월 도체찰사 유성룡과 순찰사 김륵이 정경달의 병가신청서를 받고서 본직을 바꾸었다. 드디어 1593년 9월 3일 선산을 출발하여 고향 장흥으로 내려갔다.¹⁴⁾

정약용은 임진왜란 당시 선산부사 정경달이 임진왜란 당시 왜적의 통과지점, 요해처를 지켰던 사실을 높이 평가하였다. 성해응도 임진왜란 당시 선산부사 정경달의 활약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평가하였다.

정약용: 정경달이 선산부사가 되었을 때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왜적이 부중을 점령하고 가지 않자, 공이山谷으로 달아나 숨어서 고을 사람과 장교·아전들을 불러 네 개의 영채를 설치할 것을 의논한 다음, 강 동쪽에 영채 둘과 강 남쪽에 영채 둘을 설치하였다. 그런데 적의 영채가 중간에 있고 또 물이 불어 넘쳐서 강 왼쪽의 영채에는 명령이 전달되지 못하였다. 이에 고을의 지경을 넷으로 나누어 네 개의 都廳을 설치하고 도청마다 將令 1명, 鄉所 1명, 伏兵將 6명, 游擊將 18명을 두었다. 이들은 제각기 군사를 거느리고 있으면서 적이 오면 피하고 돌아가면 진을 치

13) 『반곡난중일기』 1593년 1월 8일, 12일, 15일, 20일, 27일.

14) 『반곡난중일기』 1593년 7월 5일, 10일, 9월 3일.

며, 혹 발곡식을 거두기도 하고 혹은 흩어진 적을 잡아들여 노획한 것이 매우 많았다. 그리하여 적은 필사적으로 공을 생포하려 하였으나 끝내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충무공이 順天水營에 있으면서 공이 장수의 지략이 있음을 알고 위에 천거하여 從事官을 삼았다.¹⁵⁾

정경달은 정경달은 본관이 영광 사람[笠城人]이다. 문과에 급제하여 1592년에 선산부사가 되었다. 많은 군사를 모집하고 군량미를 모으고 감사 김성일과 병사 조대곤과 함께 기묘한 계책을 세웠다. 금오산 전투에서 여러 차례 왜군을 무찔렀다. 1594년에 수군통제사 이순신의 제청으로 그의 종사관이 되었다. 이때 각 주현에 都廳을 세워 왜군을 방비하였다. 그 해에 軍功이 책록되었다. 정경달은 왜병 165급을 참수하였고 94명을 사살하였으며 260명을 전상을 입혔다. 왜군 막사 300여칸을 불태웠다. 이로 인해 통정대부에 올랐다. 한때 이순신이 원군의 모함으로 투옥되자 정경달은 조정에 나아가 임금에게 아뢰기를 “이순신의 애국심[爲國之誠]과 적을 방어하는 재주[禦敵之才]는 일찍이 그 예를 찾을 수 없습니다. 전쟁에 나가 싸움을 미루는 것은 병가의 좋은 계책[勝籌]인데 어찌 적세를 살피고 싸움을 주저한다 하여 이를 죄로 돌릴 수 있겠습니까. 왕께서 이 사람을 죽이면 나라가 망할 것이니 이를 어찌하겠습니까”라고 주청하였다.¹⁶⁾

삼도수군통제사 이순신이 임금 선조에게 정경달을 통제사종사관으로 임명해줄 것을 주청한 배경에는 이처럼 정경달이 선산부사로 있으면서 왜적을 추격·공략하는 기묘한 계책을 발휘했던 업적이 높이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2. 통제사종사관 재임 시의 활약

선산부사 정경달의 병가신청서가 받아들여져 그는 1593년 9월 3일

15) 『與猶堂全書』, 政法集卷24, 「牧民心書卷九/兵典六條/兵典第六條/禦寇」.

16) 『研經齋全集』, 卷61, 「督府忠義傳」. 김훈의 『칼의 노래』에는 정경달을 모델로 한 이순신장군의 종사관 김수철이 등장한다. 작가가 김수철에 대해 “김수철은 곡성의 문관이었는데 임진년에는 의병장 김성일의 막하에 들어가 금오산에서 이겼다. 예민하고 담대한 청년이었다”(111쪽)고 소개한 것을 보면, 정경달의 출생지, 선산부사 이력, 이순신보다 많은 나이 등 그에 관한 주요 정보가 빠진 상태에서 그려진 인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김훈, 『칼의 노래』, 생각의 나무, 2001 참조.

선산을 출발하여 1593년 9월 10일 장흥 霜山에 있는 본가에 도착하였다.¹⁷⁾ 1593년 10월에는 장흥 會寧에 있는 별장으로 옮겨 병을 치료하였다. 그런데 1593년 8월 15일 삼도수군통제사에 임명된 李舜臣(1545~1598)이 당시 장흥에 머물면서 요양을 취하고 있던 정경달을 지목하면서, 문관 1명을 순변사의 예에 따라 종사관이라 칭하고, 종사관의 발령·배치를 통해 소속 연해의 고을을 왕래하면서 巡檢 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청하였다.¹⁸⁾

1594.01.13.: 그 다음해(1594) 1월 13일. 통제사 이순신이 나를 불러 종사관으로 삼았다. 이공은 때마침 순천의 수영에서 한산도로 옮겼는데, 그 장계에 일렀으니 다음과 같다: “신은 이미 통제사의 직임을 겸하여 3도의 수군과 장수들이 모두 휘하에 있기 때문에 점검하고 바로잡거나 조치하고 통제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에 그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신은 영남 해상에 있으면서 공문으로만 먼 길을 이첩해야 하니 많은 군사에 관한 일이 빨리 행해지지 못할 뿐 아니라, 都元帥와 巡察使가 주둔한 곳에 가서 협의하고 결제 받아야 할 일도 많지만 거리가 서로 먼지라 간혹 기한 안에 당지 못해 일이 어긋나니 극히 걱정스럽습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에 文官 1명을 巡邊使의 예에 따라서 종사관이라 호칭하여 왕래하면서 협의 사항을 알리고 소속 연해의 고을들을 순찰하면서 조치하고, 射夫와 格軍[射格]의 군량을 계속 조절하여 들이게 한다면 장래에 큰 일이 닥치더라도 만분의 일일망정 구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 섬들의 목장 안에 비어있는 넓은 땅에서 밭 갈고 썬을 파야 할 곳을 자세히 조사해보아야 할 일이 있으므로 망령된 생각을 감히 아뢰옵니다. 조정에서는 십분 헤아리시어 만약 사리와 정황에 무방하다면 장흥에 사는 전 부사 정경달이 때마침 본가에 있다 하니 특별히 명하여 벼슬을 내려 주옵소서.”¹⁹⁾

17) 『반곡난중일기』 1593년 9월 10일

18) 『반곡난중일기』 1594년 1월 13일; 『燃藜室記述』, 別集卷8, 「統制使」. 이순신의 기록에 등장하는 정경달에 대한 얘기는 『李忠武公全書』, 卷1, 「上某人書[二]」; 『李忠武公全書』, 卷3, 「請以文臣差從事官狀」; 『李忠武公全書』, 卷4, 「還陣狀」; 『李忠武公全書』, 卷4, 「還陣狀[二]」; 『李忠武公全書』, 卷4, 「請改差興陽牧官狀」; 『李忠武公全書』, 卷7, 「亂中日記三/丙申閏八月」; 『李忠武公全書』, 卷13, 「附錄五/紀實上/文獻備考」; 『李忠武公全書』, 卷4, 「附錄六/紀實下/盤谷集」 등 참조.

19) 선조-유성룡-심충겸의 대화 장면에서 선조는 통제사 이순신이 정경달을 종사관으로 삼고자 했던 내면을 직설적으로 표출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순신의 호령이 수령

삼도수군통제사 이순신과 그의 종사관 정경달의 만남, 이는 일상과 통념을 넘어서는 아주 특별한 만남이었다. 왜적의 침략으로부터 호남지방을 방어해야 한다는 명제 앞에서 이순신-정경달의 연계는 각별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영남의 조령과 죽령은 호서의 연풍, 단양과 더불어 경계를 접하고 있는데, 그 사이의 여러 물줄기들이 두 재의 아래로부터 흘러와 충주에서 합쳐진다. 그러므로 충주는 곧 水上의 요충이 되는 곳이다. 선배들이 다들 말하기를 “충주는 지켜야 할 곳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해로가 영남으로부터 곧바로 순천 등지에 이르기 때문에 왜인들이 모두 호남의 左道에 몰래 들어왔다. 진실로 왜놈들을 방어하고자 할진대 반드시 먼저 호남을 경계해야 하며, 만약 호남이 안전하지 못할 경우에는 비록 조령과 죽령을 버리고라도 곧바로 경기[畿甸]에 들어 다칠 수 있으니,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이 점을 몰라서는 안 된다.²⁰⁾

1594년 2월 19일 정경달은 장흥 상산에서 출발하여 한산도로 부임하였다. 1594년 2월 23일 순천의 좌수영 앞바다에서 배를 탔으며 2월 26일 한산도에 닿아서 예법대로 통제사 이순신[李爺]을 알현하였다. 이때 정경달은 백성들의 피폐한 모습을 극진히 아파면서 선산부사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여러 고을에 都廳을 세우도록 청하자 이순신[主將]은 이를 적극 수용하였다.²¹⁾

종사관 정경달의 시선으로 파악한 당시의 어려운 현실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종사관 정경달은 수군을 검척하는 임무(左道 巡檢, 下道 巡檢)

에게 시행되지 않고, 여러 장수가 서로 화합하지 않는다고 하니, 명망이 있는 문관으로 종사관을 삼아 보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일컫자, 유성룡이 아파하기를 “전 선산부사 정경달이 내려갔습니다”라고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명망이 있는 문관을 정하여 보내야 열읍(列邑)을 호령할 수 있을 것이며 군중(軍中)에 외람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그를 꺼리는 마음에 사태가 진정이 될 것이다. 병조판서의 뜻은 어떠한가”라고 일컫자, 심충겸이 아파하기를 “이 계책이 매우 타당합니다”라고 하였다(『선조실록』 1594년 6월 18일). 위의 대화를 통해서도 조선시대 과거제도에서 문과 출신과 무과 출신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크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20) 『林下筆記』, 卷27, 「嶺湖防禦」.

21) 『반곡난중일기』 1594년 2월 19일, 23일, 26일.

를 주로 하되 둔전을 검직하는 업무도 겸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²²⁾ 종사관으로 부임하기 전에 정경달이 “이때 3국은 전쟁을 한 지 이미 3년에 이르러서 군사가 지쳤고 재물이 다한 데다 전염성 열병[癘疫]이 치성하여 인민들이 열이면 여섯 일곱 명이 죽었고 씨를 뿌리지 못한 땅이 3분의 1이었다”고 했던 말, 그리고 “도원수 權慄 등이 의령에 주둔하였고 통제사 등이 한산도에 주둔하였지만 군량이 떨어지고 군사들이 흩어져 어찌할 바를 몰랐다”고 했던 말은 당시의 현안과 급선무가 무엇이었는지를 잘 보여준다.²³⁾

1594.07.08.: 함양부사에 제수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얼마 후에 종사관이라는 이유로 다시 체직되었다. 충무공이 재상에게 올린 편지에 이르기를 “군량은 더욱 의퇴할 길이 없어 온갖 생각을 해도 조치할 도리를 알 수 없습니다.……종사관 정경달은 屯田을 감독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였는데,²⁴⁾ 전 관찰사[方伯]의 공문에는 “관찰사[道主] 이외에는 둔전을 계속 경작할 수 없으며 일체 감독하지 말라”고 하니 저는 그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정경달도 지금 함양군수가 되었다고 하니, 그 감독하던 일도 장차 허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몹시 답답하고 안타까우니 추수할 때까지라도 그대로 유임할 수는 없겠습니까”라고 하였다.²⁵⁾

통제사 이순신은 종사관 정경달을 통해 둔전 감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대했고, 이는 문과 출신 종사관을 기용하게 된 중심 구상에 따른 것이었으나 정경달의 역할 역시 관찰사의 간섭·압력 앞에서 원활하게 뜻대로 일이 전개된 것만은 아니었다. 그 와중에 정경달이 함양군수로 전보되었다는 소문(1594년 7월 8일 당시)이 돌 정도로 체계·계통이 잡혀있지 못한 불안정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종사관 정경달의 1594년 8월 20일~9월 17일의 좌도 순검[대상지역: 보성, 낙안, 순천, 광양, 구례, 곡성, 남원, 옥과, 순창, 담양, 광주, 능주

22) 『반곡난중일기』 1594년 1월 13일, 3월 4일, 5월 15일, 7월 8일.

23) 『반곡난중일기』 1594년 3월 27일.

24) 『반곡난중일기』 1594년 2월 19일, 23일, 26일.

25) 『반곡난중일기』 1594년 7월 8일자 내용은 『李忠武公全書』, 卷1, 權著, 「上某人書 [二]」 동시 참조.

등], 1594년 10월 7일~10월 19일의 본도 군사들의 무예 시험[대상지역: 능주, 광주, 남평, 영암, 해남, 강진, 장흥 등]²⁶⁾, 1595년 1월 9일~그믐날의 하도 순검[대상지역: 장흥, 강진, 해남, 진도, 영암, 나주, 남평, 능주 등] 등은 사실상 모두 수군을 검척하는 과업이었다.

현실 문제로 유성룡은 한산도에서 온 선전관의 말을 인용하여 당시 수군이 처한 실상, 그 참혹하고도 측은한 현실에 대해 “수군과 격군이 굶주린 지 벌써 오래라 얼굴색이 말이 아니어서 한두 달을 못 지나 모두 죽을 것이며, 지난해에 사망한 군졸의 해골이 해변에 쌓여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국가는 길가에 떠돌아다니는 백성들에게도 창고를 풀어 구제하는 법인데 하물며 창을 메고 싸움터에 나가 있는 군졸들이 굶어 죽어 가는 것을 좌시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한 바 있다. 이는 특히 범주를 놓고 말하자면 전라도 연해의 군현이 모두 탕진됐다는 얘기이다.²⁷⁾

통제사 이순신과 종사관 정경달로 하여금 맡게 해서 순찰사에게 알리고, 배를 동원해서 급히 1, 2천 석을 풀어 그들을 구제한다면 군졸들은 몇 달 동안 연명할

26) 정경달이 1594년 10월 7일~10월 19일까지 12일간 군사들의 무예를 시험하는 길에 나섰던 사실(『반곡난중일기』 1594년 10월 7일)은 수군을 순검하는 성격과 의미를 보여주는 장면인 바, 이는 당시의 군공 담론이 얼마나 형편없는 상태로 추락했는가를 함께 살피면서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 『선조실록』 1594년 4월 18일자 기사를 보면,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상황이라지만, 군공에 관한 허위가 많아 뒷말들이 분분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애당초 적을 상대하여 크게 싸운 일도 없었는데 군대들이 오랫동안 모아온 왜적의 머리[首級]를 진짜-가짜를 가리지도 않고 승첩의 성과물로 평가한다는 지적, 그리고 초시에 입격된 자가 베어왔다는 왜적의 머리[倭頭]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조사하여 밝혀내기가 어렵다는 지적을 통해, 참으로 왜놈의 머리를 가져온 자는 얼마 안 되고 대부분은 모두 우리나라의 굶주린 백성들을 남모르게 죽여 머리털을 깎아낸 다음 그것으로 숫자를 채운 것이라는 보고였다. 사람의 머리[人頭]를 사고파는 데는 일정한 값이 있어 처음에는 머리 하나에 쌀 40~50말 하던 것이 중간에 와서 10여 말로 내렸고 나중에는 다시 겨우 한 끼 밥만 먹여주면 곧 살 수가 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특정지역에서는 왜놈의 머리를 바쳐 과거에 급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양민을 학살하는 큰 함정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선조실록』 1594년 4월 18일).

27) 『西厓集』, 卷8, 「措置防守事宜啓[乙未]」.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둔전에서 양곡 생산하는 일에 더한층 진력하여 군량을 이
어 나갈 계획을 삼아야 합니다. 유유히 날짜만 보내다가 또다시 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난해에 이순신이 올린 장계에 정경달을 시켜 둔전을 경작하였다고 했는
데 그 소출이 얼마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금년 둔전도 그대로 정경달에게 시켜 진
력하여 조치케 하고, 근처의 감목관 나덕준 등에게 작년에 소출한 곡물을 함께 받
아들여 종자를 삼아 한산도 근처에 경작할 만한 땅이 있으면, 싸움이 없는 여가에
초소 근무 군사를 열씩 또는 다섯씩 짝을 지어 기장·차조·콩·조를 많이 심게 합니
다. 그리고 해변의 경작할 만한 기름진 땅에 편리한 시설을 많이 갖추어 왜적의 포
로가 되었다가 도망 나온 사람이나 또는 영남 지방의 실업자들을 모으면 모두 농
군이 되니 경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경달이 이 일을 잘 해낼지의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사변 초에 정경달은 선산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선산지역[境土]을 떠
나지 않았고 꽤 군공이 있으니, 약해서 책임을 이기지 못할 무리는 아닌 것 같습니
다. 더군다나 이순신의 군중에는 이미 종사관 심원하가 있으니 정경달이 둔전 일
을 전담해서 그 성과를 책임지게 하는 것이 실로 무방하겠습니다. 이러한 뜻으로
순찰사 홍세공과 이순신 등에게 급히 유시를 내리심이 어떻겠습니까.²⁸⁾

유성룡은 1595년 당시의 둔전 관리·경영 문제와 관련하여 통제사종
사관 정경달에게 이를 전임토록 하여 그 성과를 책임지게 하는 것이 실
로 무방할 것이라는 계사를 올렸다. 하지만 임금이 이에 대해 신중한 대
응이나 조치를 취한 것 같지는 않다. 바로 1595년 2월 2일자로 정경달
은 남원부사로 발령이 났기 때문이다.

3. 남원부사~청주목사 재임 시의 활약, 그리고 낙향

임진왜란 발발 이후 1592년 4월부터 1595년 1월에 이르기까지 거의
3년 동안 선산부사와 통제사종사관으로 활약했던 정경달이 1595년 2월
2일 갑자기 남원부사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정경달은 1595년 1월
27일 나주에 있던 도중에 이미 남원부사에 제수되었다는 소식을 들었
다.²⁹⁾

28) 『西厓集』, 卷8, 「措置防守事宜啓[乙未]」.

29) 『반곡난중일기』 1595년 2월 2일.

임진왜란 당시 남원은 호남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였다. 전란 초기부터 명나라 지원군이 남원에 들어와 주둔하며 호남지역을 방어하거나 영남과 남해안으로 오가는 중간 기착지로 활용하였다. 1595년 4월 28일에는 參將 劉維藩이 남원부에 들어왔고, 5월 19일에는 都司 譚宗仁이 남원부에 들어왔다. 남원부사 정경달은 “유 참장과 담 도사 두 사람이[劉譚二人] 온갖 폐단을 일으켜[作弊萬端] 이를 버티기가 힘들었다[不可支也]”고 심적 고뇌를 드러냈다.³⁰⁾ 1595년 8월 14일에는 체찰사 일행(都體察使 李元翼, 副體察使 金玢, 從事官 南以恭)이 남원부에 들어와 있다가, 8월 18일에 운봉을 향해 떠났다. 1595년 9월 15일에는 天使 李宗誠과 汝蓄이 남원부에 들어왔다.³¹⁾ 명나라 사신을 ‘天使’라 칭한 데서 알 수 있듯이, 당시의 기록에는 천사의 민낯에 대한 묘사나 형용은 많지 않은 편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들의 추태를 예사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남원 일대의 天使臺, 豬轉山, 魚藪川에 대한 얘기는 ‘천사’ 이종성에 대한 아주 그럴듯한 내러티브를 간직하고 있지만, 그 디테일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반국난중일기』의 “이종성이 꿩 사냥을 하는데[天使獵雉] 사냥이 제대로 되지 않자 화를 냈다[不利發怒]”는 얘기(1595년 9월 23일), “이종성이 사냥에서[天使山行] 포획물이 많아 매우 기뻐했다[大獲極喜]”는 얘기(1595년 10월 8일)³²⁾는 전시 중의 명나라 지원군이 보이는 행태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리고 성리학적 질서를 기본으로 삼는 유교지식인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야말로 속이 터지고도 남을 얘기였다. 남원부사 정경달이 명나라 장수/군대/사신의 파렴치하고도 어처구니없는 행태로 인해 겪었던 심적 고뇌

30) 『반국난중일기』 1595년 5월 19일.

31) 1595년 6월 이종성이 남원에 들어온 이래 미리 남원부에 와서 머물고 있던 이항복이 이종성의 접대에 크게 신경을 썼다. 당시 이종성에 대한 이런저런 기록의 대부분은 심기 경호에 관한 것이었다. 남원 범실마을(南原市 朱川面 虎基里) 일대 유람 기록이나 천사대 관련 얘기, 저전산, 어수천의 수렵·천렵 얘기 등이 다 이종성과 관련이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박현규, 「임진왜란 시기 남원 소재 명군 유적과 작품 고찰」, 『중국어문학』 84, 2020, 84~86쪽 참조.

32) 『반국난중일기』 1595년 9월 23일, 10월 8일.

는 절망의 늪에 빠진 상태나 다를 바 없었다.³³⁾

1595년 11월 19일 남원부사 정경달이 파직되었다. 파직 사유는 자연 재해 때문이라고만 되어있다. 정경달은 11월 22일 동자 한 명에 말 한 필로 출발하여 11월 25일 고향 장흥 상산으로 돌아왔다. 정경달은 남원 부사에서 파직된 이래 1595년 11월~1597년 2월 사이, 특히 1596년에는 1년 내내 고향 장흥의 상산과 회령 사이를 소요하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이때는 일기도 남기지 않았다. 그런데 이순신의 기록에는 이순신과 정경달의 만남이 기록되어있다. 『이충무공전서』에는 이순신과 정경달의 만남에 대해 “1596년 윤8월 20일. 맑음.……점심을 먹고 난 후 長興府에 도착함. 나는 東軒에서 숙박함. 金應男이 찾아와 만남. 21일. 맑음. 계속 머물며 숙박. 丁景達이 찾아와 만남.”이라고 기록되어있다.³⁴⁾

1595년 11월 19일 남원부사에서 파직된 이래 1597년 3월 19일까지 고향에서 지내고 있던 정경달이 다시 조정의 부름을 받게 되었다. 1597년 3월 20일부터 1598년 4월 6일까지 정경달은 五衛將-接伴使-迎慰使 등을 역임하였다. 당시의 『반곡난중일기』는 고향의 안녕, 왜적선의 침입,

33) 임진왜란에 대한 기록은 승부와 상관없는 기록일수록 3국의 자료·기록이 너무 많이 다르거나 모순된 경우가 많다. 명나라의 임진왜란에 대한 기록은 조선 파병의 관점 및 재조지은의 시각에서 작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당시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기록으로 담아냈다고 보기는 어렵다(유보진, 「대의명분론과 임진왜란: 명왕조의 시각으로 본 임진왜란」, 『사회과교육』 51(4), 2012, 15~26쪽). 그 부당함과 불리함을 항변하기도 쉽지 않았다. 정약용은 임진왜란 중에 조선의 유교지식인 정경달이 겪어야 했던 심적 고뇌를 幽憤과 苦心의 개념을 통해 풀이하였다: “벼슬이 낮으면 비록 위에서 명령하는 것이 합정 속으로 몰아넣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다만 머리를 숙이고 받들어 시행하면서 그 실패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리가 멀면 비록 가슴에 품은 지식이 천지를 돌리고 일월을 굴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오직 입을 봉하고 할 말을 못하고서 그 분수를 지킬 뿐이니, 이를 유분이라고 한다. 유분이 있는 자는 당세에는 쓰이지 못하고 오로지 그 포부를 필묵으로 발설하여 후세에 시행되기를 바랄 뿐인데, 이를 고심이라고 한다. 뜻있는 선비가 유분과 고심을 모르면 역시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는 것이니, 대체로 이 『난중일기』를 읽는 사람은 먼저 그 유분과 고심에 대해서 눈을 밝게 떠야만 아마 유익함이 있을 것이다.”(『與猶堂全書』, 詩文集卷14, 「題盤谷丁公亂中日記」)

34) 『李忠武公全書』, 卷7, 「亂中日記三」/[丙申]閏八月.

원균의 패전, 이순신의 승전 등에 관한 얘기로 채워져 있다. 1597년 7월 15일~16일의 漆川島 부근에서 벌어진 칠천량해전은 조선의 수군이 전투를 치러보지도 못한 채 전멸당한 전쟁이었다. 당시에는 칠천량해전에 대해 주로 ‘한산도 패전보[閑山敗報]’, ‘한산도사정[閑山事情]’, ‘한산도 궤멸·패배[閑山島潰敗]’, ‘한산도 패배[閑山之敗]’, ‘한산도일패[閑山一敗]’ 등으로 표기하였다.³⁵⁾ 사관은 칠천량해전의 패배로 인해 “호남이 함몰되었고 호남이 함몰되고서는 나랏일이 다시 어찌할 수 없게 되어 버렸다. 일의 형세를 목도하건대 가슴이 찢어지고 뼈가 녹는다”고 하였다.³⁶⁾ 이순신을 배제하고 원균을 내세워 치른 칠천량해전의 참패에 대해 사관은 “가슴이 찢어지고 뼈가 녹는다[胸欲裂而骨欲銷也]”고 처절한 인식을 드러냈다.³⁷⁾

1597.07.23.: 개성으로 돌아왔다. 듣건대 왜적선 800척이 바다를 건너왔다고 하였다.³⁸⁾

35) 『선조수정실록』 1597년 7월 1일, 『선조실록』 1597년 7월 22일, 11월 10일, 1598년 4월 2일.

36) 『선조실록』 1598년 4월 2일.

37) 칠천량해전(1597.7.16.)은 임진왜란 7년간 왜의 수군이 승리한 유일한 전투였으며 조선의 수군이 패배한 유일한 전투였다. 조선 수군은 이 한 번의 패배로 궤멸 직전까지 갔다. 칠천량해전 패전의 요인으로 주간이동으로 인한 공격기도 노출과 격군 감소로 인한 함대의 기동력 저하를 들기도 한다. 이원희, 「정유재란기 칠천량해전의 패인 분석」, 『군사연구』 139, 2015, 289~317쪽.

38) 『반곡난중일기』의 정보 기술에는 시간차가 발생하기도 한다. 실록 기사에 따라 당시를 구성하면 이순신은 파직(1597.2.6.), 압송(1597.2.26.), 투옥(1597.3.4.), 석방/백의종군(1597.4.1.), 모친별세(1597.4.11.), 삼도수군통제사복직(1597.7.23.)에 이르는 흐름을 보인다. 이순신이 통제사로 복직하기 전날은 선전관 김식이 칠천량 해전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조정에 장계를 올려 보고한 날이었다(『선조실록』 1597년 7월 22일). 이순신의 통제사 복귀 이후의 전개 과정을 간략 언급하자면, 배설로부터 12척의 전선을 인계받았으나(1597.8.18.), 배설이 도주하였으며(1597.9.2.), 선전관 박천봉을 통해 “수군을 폐지하고 육지에서 싸우라”는 왕명을 전달받았다(1597.9.15.). 그러나 통제사 이순신은 울돌목에서 전선 13척(1척 별도 추가)으로 133척의 왜군과 싸워 승리(1597.9.16.)한 이래 전승을 이어가다가 마지막 해전인 노량해전에서 전사하였다(1598.11.19.). 이순신이 선조의 “수군을 폐지하고 육지에서 싸우라”는 명을 받은 것은 1597년 8월 15일로 추정된다는 의견도 있다. 제장명, 「정유재란기 명량해전

1597.07.24.: 길에서 王春府를 만났다. 칠천량해전에서 패배했다는 소식[閑山敗報]을 들었다. 날이 저물어서야 서울에 들어갔더니 패전했다는 소식 때문에 안팎의 인심이 흉흉하였다.

1597.08.07.: 장흥의 신임부사 田鳳이 왔다가 작별하고 떠나갔는데 집에 보내는 편지를 부쳤다. 전주의 壯士 최영길이 찾아와서 칠천량해전에서 패배했다는 소식[閑山敗報]을 알려주고 생토란[生芋]을 가져다 주었다.

1597.08.08.: 듣건대 왜적이 전라도로 쳐들어가서 왜적선 7척으로 防踏鎭의 군량을 거두어가자, 장흥 등의 관아 일대가 텅 비게 되었는데 裴慶男은 왜적이 없는데도 불을 질렀는지라 左營의 元帥가 죄주기를 청하였으며 진주는 이미 텅 비어 왜적의 수중에 있다고 하였다.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며 잠을 자지 못했다.

1597.08.10.: 왜적에 관한 소식이 몹시 다급하자 서울에서는 피난 나가는 사람이 많았다.

1597.09.07.: 摠兵 楊元이 다시 서울로 향하였다. 역마를 명나라 병사에게 탈취당하고[驛馬見奪於唐兵] 연군정(평안도 중화 소재 정자)에 머물러 있자니[留練軍亭] 쓸쓸하고 처참하였다[寂寥淒愴]. 총병이 올라갔지만 병 때문에 뒤따라가지 못한 일로 狀啓를 올렸다. 유상공(유성룡)에게 편지를 올려서 접반사의 경질을 청하였다.

1597.10.21.: 아침에 관관이 나를 보러 찾아와서 말하기를 “왜적선이 진도에 도착했을 때 통제사 이순신이 31척을 격파[撞破]하고 6척을 사로잡았으니 俞公은 가족들[家眷] 걱정일랑 조금도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였다.

1597.11.29.: 15일 서울에서 온 편지를 받았는데 통제사 이순신이 10월 14일 밤 해남에 주둔한 왜적을 대파하고 군량미 348석을 탈취하자 강진, 장흥, 보성의 왜적들은 모두 숨어들었고 순천, 광양의 왜적들도 도망치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

정경달이 오위장-접반사-영위사 업무를 수행 중일 때인 1597년 9월 7일자 기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정경달이 역마를 명나라 병사에게 빼앗겼던 당시의 처참하고도 쓸쓸한 심정은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것이었다. 정경달이 총병 양원을 따라 서울로 향하지 못한 것이 명나라 일개 병사에게 역마를 탈취 당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 그것은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유교지식인 어느 누구도 겪을 수 있었던 모욕이자 참담함이기도 했다. 이때 정경달은 유성룡에게 접반사를 그만둘 것을 청했다.

의 주요쟁점과 승리요인 재검토」, 『동방학지』 144, 2008, 207~253쪽.

오위장-접반사-영위사 업무로 인해 크게 지쳤던 정경달은 1598년 3월 1일 병으로 드러누웠다. 3월 16일 병을 무릅쓰고 무리하게 좌의정 김응남을 만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하였다. 4월 1일 두 번째 사직서를 올렸더니 그제서야 비로소 체직되었다. 유성룡은 고향 장흥으로 떠나는 정경달에게 “주상께서 그르게 여기실까 두려우니 속히 올라오기를 바란다”는 부탁의 말을 전하였다. 4월 6일 새벽에 서울을 출발하여 한강을 건넜다. 정경달은 고향 장흥에 당도하여 동생 집에 머물렀다.³⁹⁾

정경달은 고향 장흥에서 왼쪽 다리의 병을 치료하던 중에 6월 3일 청주목사로 발령받았다. 서울에서 당도한 편지에는 발령사항에 대한 안내와 함께 임금에 대한 숙배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임지로 부임하라는 당부가 들어있었다. 정경달은 6월 9일 장흥을 출발하여 6월 16일 청주 임지에 도착하여 목사 업무를 수행하였다.⁴⁰⁾ 청주목사 정경달이 감당했던 대부분의 업무는 사실상 명나라 군대를 상대하는 일이었다.

1598.08.10.: 축시(새벽 2시 전후)에 출발하여 梁山 땅에 도착하였다. 兵使가 진을 치고 있는 곳에서, 즉시 군사를 거느리고 오지 않은 것 때문에 수행한 아전들이 杖刑을 받았다. 이날 병사와 서로 회합하여 오랫동안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의논하였다.……

1598.08.21.: 麻貴와 董一元 두 제독이……충주에 도착하였다. 동일원 제독의 접반사 李忠元과 마귀 제독의 접반사 李光庭은 말을 다투어 수령들을 죄 주는 일이 많았다.

1598.11.06.: 충주에서 곤욕을 치렀다. 給事中(徐觀瀾)의 행차를 문경까지 호송하였다. 이날 병부주사 丁應泰의 행차가 충주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관용 마필

39) 『반곡난중일기』 1598년 3월 1일, 16일, 4월 1일, 6일, 5월 4일. 당시 선조의 문관에 대한 시선 역시 끊지 않았다. 이는 정경달의 사직을 전후한 시점에서 선조가 내린 “문관으로서 직임이 있는 자가 직무에서 벗어났거나 공무로 인해 고향으로 돌아가 쉬고 있어서 監司로 하여금 잡아 보내게 하는데 완고하게 버티면서 꼼짝도 않으려는 자들을 기록해 보고하고 그 죄를 다스리도록 하라”는 전교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반곡난중일기』 1598년 3월 26일).

40) 『반곡난중일기』 1598년 6월 3일, 9일, 16일.

[刷馬] 준비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일로 重杖 4대를 맞으며 밤새도록 곤욕을 치렀는데 종사관 송영구와 충주목사 김명윤이 함께 고초를 겪었다[협주: 정수철이 살 피건대 정응태란 자는 곧 우리나라를 엄청나게 무고한 중상모략꾼이었다. 그가 행했던 곳은 서쪽으로 溟西(황해도, 평안도)에서 남쪽으로 영남에까지 이르렀는데 도로에서는 횡포를 부리고 거슬리는 자는 분쇄하는 음험한 사람[陰險之人]으로 사람을 해치는 것이 이와 같았다. 이는 곧 우리나라의 원수이니 잊어서는 아니 된다.].⁴¹⁾

1598.12.01.: 청주에 있었다. 아침에 貴孫을 보았는데 서울에서 내려왔다. 듣건대 사헌부의 장계에 이르기를 “청주목사 정경달이 주사(병부주사) 정응태⁴²⁾가 남하할 때에 혹독히 곤장을 맞은 상처로 말미암아 관청의 일을 일체 폐하자 아전들이 농간을 부려 온갖 폐단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중요한 요충지가 장차 폐기해야 할 고을이 되겠으니 아원 대로 파직해주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한다. 듣자니 아는 친구들[知舊諸公]이 나를 위해 애썼다고 하였다. 마침내 인계서류를 작성하였다.

청주목사 정경달의 직무는 그렇게 끝이 났다. 정경달은 1598년 12월

-
- 41) 정경달이 관직에서 최종적으로 물러날 결심을 하게 만든 인물이 바로 정응태였다. 명의 만력연간(1573~1619)의 중앙정치제도 운영상의 문제는 당쟁의 맥락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임진왜란 당시에는 주화파(趙志皋, 石星, 沈惟敬, 丁應泰)와 주전파(張位, 沈一貫, 邢玠, 楊鐫)의 격렬한 대결 양상으로 표출되었다. 임진왜란 시기 베이징의 명 조정에서 벌어진 주화파와 주전파의 대립은 전장을 방불케 하는 것이었고 이 전장에서의 승패가 임진왜란의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홍성구·조영현, 「임진왜란 학술대회를 다녀와서」, 『명청사연구』 47, 2017, 295~296쪽). 청의 강희제도 명이 망하게 된 근본 원인이 당쟁이었음을 지적하여 “명이 환관 때문에 망하였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명이 망하게 된 원인이 환관이 권력을 휘둘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틀린 말이다. 환관의 전횡보다는 당쟁이 근본 원인이었다. 이 때문에 명의 관료들은 조정에서 권력을 놓고 서로 싸웠고 나랏일을 전혀 돌보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J. D. Spence, *Emperor of China: Self-Portrait of K'ang-hsi*. New York: Alfred A. Knopf, 1974, 이준갑 역, 『강희제』, 이산, 2001, 156~160쪽.
- 42) 정응태와 선조의 모화관에서의 만남과 대화에서, 선조는 “상국에서 동방으로 흘러온 교화에 힘입어 文華만을 숭상하고 武藝는 좋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정응태는 “태평시대에는 文墨을 숭상하는 것이 좋지만 이런 전쟁을 할 때를 당해서는 또한 武備를 숭상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말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선조실록』 1598년 2월 12일 참조.

14일 새벽에 청주를 출발하여 12월 21일 저녁에 전라도 靈光 地藏里에 이르렀고, 다음날에는 청주에서 온 수하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정경달은 영광 지장리에 있으면서 1598년 한 해를 보냈다.⁴³⁾ 당시 청주목사 정경달의 지배 정서는 불행이었다.

내가 생각건대 금년에는 적병에게 시달려서 家業이 결판났는데 봄에는 가족들 때문에 근심하였고 여름에는 청주에서 곤욕을 치렀고 겨울에 이르러서도 충주에서 곤욕을 당하였으니,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가장 불행한 해이었다[平生大不幸之年也].⁴⁴⁾

정경달은 선산부사 시절 일찍이 義兵大將, 識理將軍, 上道大將 등으로 평가받았고, 통제사종사관으로 활동했던 당시에는 주도적인 방어/순검활동을 펼쳤다. 그랬던 정경달이 남원부사로 있으면서 그리고 특히 청주목사로 있는 동안 명나라군대를 보좌하는 일로 인해 심신의 상처와 충격을 크게 받았다. 그야말로 정경달 스스로의 표현처럼 인생 최대로 불행했던 시기[平生大不幸之年也]였다. 명나라 군대/장수/참모로부터 겪었던 수모와 곤욕(곤장 맞은 일 등등)을 통해 국가를 스스로 지키지 못하고 원군을 끌어들였을 때의 참담함, 그리고 수세적인 대응태세는 위기지학과 성인지학과 종신사업을 추구하는 유교적 공부론의 영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모욕이기도 했다. 그것은 정경달은 정경달대로, 이순신은 이순신대로, 유성룡은 유성룡대로 겪어야 했던 참담함이었다.

정경달은 장흥에 낙향한 이래 상산과 회령을 오가면서 요양을 취하였다. 병고 때문인지 낙향 이후 이어진 자연인 정경달의 삶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그런데 정경달의 마지막 3년의 시간에는 특별한 이름이 등장한다. 정경달은 1599년~1601년 사이에 능성현령 나대용(羅大用, 1556~ 1612)을 여러 차례 만났음을 기록하였다.⁴⁵⁾ 정경달과 나대용의

43) 정경달이 1598년 12월 21일에 전라도 영광 지장리에 이르러 이곳에서 1598년 한 해를 보냈는데, 지금의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지장리이다.

44) 『반곡난중일기』 1598년 12월 30일.

45) 『반곡난중일기』 1599년 3월 7일, 5월 7일, 1601년 10월 30, 11월 1일.

공통분모는 이순신이었다.

1599.01.11.: 상산에 들어서니 남김없이 결판났다. 동생의 집에서 기거하기로 하고 사당과 묘소를 배알하자 저절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1599.03.01.: 회령에 있었다.

1599.03.07.: 상산으로 돌아오는 길에 綾城縣令 羅大用을 만나 술을 마셨다.

1599.03.26.: 동백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석천수가 맑고 시원하니 봄날의 감흥이 일어났다. 갑자기 대궐을 그리는 마음이 생겨 절구시 한 수를 읊조렸으니 다음과 같다: “세상만사 지금은 흰머리만 부쩍 늘었는데[萬事如今白髮新]/푸른 산에 꽃잎 지니 또 봄이 감을 슬퍼하여라[碧山花落又傷春]/높은 곳에 올라도 깊고 그윽한 흥취가 없어[登高不是深幽興]/지초나 난초를 잠깐 캐고는 미인을 바라보노라[薄採芝蘭望美人].”

1599.05.07.: 능성현령 나대용이 나를 보러 찾아왔다. 듣건대 명군이 장차 영남과 호남으로 내려올 것이라고 하였다.

1599.06.14.: 文希凱의 편지를 보니, 전라도에서 있었던 己丑獄事의 원통함을 씻어달라는 상소에 아들 정명열도 동참했다는 것을 알았다.⁴⁶⁾

1599.06.18.: 社倉에 이르러 좌의정을 찾아뵈었다. 저녁에 상공(이덕형)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민폐에 대해 극진히 개진하자 상공이 한편으로 묻고 한편으로 기뻐하더니 내가 말한 바를 다 들어주었다. 이덕형이 말하기를 “조정이 바야흐로 어지러워 유상국(유성룡)을 없애기 위해서 왜놈에게 달려가 나라를 판 것으로 기울었는데 이원익이 구제하려다가 함께 쫓겨났으며, 우의정 이항복도 베어내야 할 사람으로 지목되어 잘못하였다고 비난합니다. 나 또한 주상께 신임을

46) 기축옥사는 1589년 10월, 鄭汝立의 모반을 고변하면서 시작되었다. 鄭澈이 옥사를 주관하면서 1589~1590년 사이에 李潑, 李洁, 白惟讓, 柳夢井, 崔永慶 등은 처형, 鄭彥信, 鄭彥智, 鄭介淸 등은 유배, 盧守愼은 파직되었다. 많은 희생자가 나온 기축옥사에서 가장 억울한 죽음을 당한 이는 이발의 노모와 어린 아들이었다. 사건 이후, 여론은 이들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정철과 유성룡 두 사람을 지목하여 공방을 벌였다. 정호훈, 「조선 후기 당쟁과 기록의 정치성: 기축옥사 희생자의 가해자 공방과 관련하여」, 『한국사학사보』 33, 2016, 151~186쪽 참조. 정약용이 기축옥사에 대해 “정여립이 역적이 아닌 것이 아니나[鄭汝立未嘗非逆賊] 사람들이 기축옥사를 원옥이라 하는 것은[而人稱己丑之冤者] 최영경과 정언신 등 죄 없이 죽은 이가 많기 때문이다[爲崔永慶鄭彥信等多非其罪也]”면서 “그렇다면 비록 역적과 관련된 사람을 다스리는 옥사라 할지라도[然則雖逆賊雜治之獄] 억울하게 죄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사화인 것이다[其冤者士禍也]”고 했던 말에 유의할 일이다(『與猶堂全書』, 詩文集卷15, 「茯菴李[基讓]墓誌銘」).

언지 못하여 오래지 않아 의당 교체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야기가 2경(二更: 밤 10시 전후)까지 이어져서 달빛을 타고 서당으로 올라왔다. 판보[朝報]를 보니 5월 17일자로 서용되었고 19일자로 호군에 제수되었다.⁴⁷⁾

1601.10.30.: 敬差官과 綾城縣令(나대용)이 같이 와서 술에 함께 취하였다.

1601.11.01.: 경차관과 능성현령이 돌아갔다.

1602.12.12.: 서울서 온 편지를 보았더니 軍功으로 인하여 嘉善大夫로 품계가 올랐다.

1602.12.17.: 이날 밤 자정에 선생은 상산 본가에서 운명하였다. 이날 차츰 정신이 들어서 유언서[明文]까지 짓도록 하였는데 날이 어두울 무렵에 갑자기 위중 하더니 한밤중에 절명하였다.

정경달과 나대용의 만남을 통한 과거의 회상은 많은 것을 생각토록 만든다. 거북선의 발명자로 이순신을 거론하지만 그 중에는 나대용의 역할이 컸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⁴⁸⁾ 나대용에 관해서는 “이순신을 따라[從李舜臣] 거북선 3척으로 왜군을 격파하였다[以龜船三隻破倭]”는 기록(『研經齋集』, 卷61, 「督府忠義傳」), “충무공 이순신을 따라[從李忠武舜臣] 거북선 3척을 만들어[粧龜船三隻] 왜적을 격파하는 공을 세웠다[破倭有功]”는 기록(『李忠武公全書』, 卷14, 「羅州牧志」)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나대용은 임진왜란 이래 거북선보다 성능이 뛰어난 전함을 만드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순신의 거북선 제작에 실무적 기여가 컸던 나대용은 1599년에 거북선이 활쏘기가 불편하고 노를 짓는 병사[格軍]가 많이 소요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를 수정보완하고 판옥선과 거북선 각각의 장점을 살린 신형군선인 鎗船을 건조하였다.

47) 정약용이 『반곡난중일기』의 해제[洙水宗人丁鏞案]를 통해 지정한 바와 같이, 유성룡, 이원익, 이항복, 이덕형 등은 모두 평소 정경달을 추천하고 이끌어주었던 대신들이었다. 이들은 덕망이 높은 인물들[元老]이자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인물들[元勳]들이었으나 임진왜란이 겨우 평정될 무렵 北人-大北 정권이 정치를 주도하면서 모두 축출되었다(『반곡난중일기』 1599년 6월 18일).

48) 나대용은 자전적 술회를 통해 “1591년에 수사 이순신의 監造戰船出納軍兵軍官이 되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전선 건조를 감독하고 군병 출납을 담당하는 군관이었던 것이다. 『선조실록』 1606년 12월 24일.

대체로 왜적을 막는 데에는 수군(=舟師)보다 앞설 것이 없습니다. 1592년-1593년의 戰船 숫자는 거의 2백여 척에 달하였으나 오히려 부족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유재란(1597) 이후로는 간신히 마련한 전선의 숫자가 三道를 통틀어 60여 척이었으니 각처에 배분하는 데 있어 극히 소홀하여 뜻밖의 사태가 일어날 경우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으니 뉘라서 숫자를 늘리는 것을 바라지 않겠습니까마는 군사가 부족하여 만들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군사의 숫자로써 배를 늘리는 계책을 말해보겠습니다. 거북선[=龜船]은 전쟁에 쓰기는 좋지만 거북선의 실전 배치 및 운용에는 射手와 格軍의 숫자가 판옥선의 소요인원인 125명 정도가 소요되며, 거북선 안에서 활을 쏘기에도 불편하기 때문에 각 수영에 한 척씩만을 배치하고 더 이상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신이 늘 격군을 줄일 방도를 생각하다가 1599년에 감독할 때, 판옥선도 아니고 거북선도 아닌[非板屋非龜船] 다른 모양의 배를 만들었는데 갈과 창을 뺄뻑이 꽃았으므로[別樣造作森插劍槍] 이름을 쟁선이라 하였습니다[名曰鎗船]. 격군 42명을 나누어 태우고[格軍四十二名分載] 바다에 나아가 노를 젓게 하였더니[試掉洋中] 빠르기가 하늘을 나는 듯하였고[其疾如飛] 활쏘기의 편리함도[射矢之便] 판옥선보다 나았습니다[亦勝於板屋].⁴⁹⁾

이순신의 후임 삼도수군통제사 李雲龍의 장계(1606.12.24.)에는 위의 나대용이 올린 상소가 들어있다. 나대용의 상소에는 임진왜란 당시는 물론 그 이후의 조선 수군의 대비책이 얼마나 허술하고 안이한 것이었는지가 드러나 있다. 임진왜란-정유재란이라는 참상을 겪고 난 이후에도 나라의 대응책은 너무도 한심한 것이었다. 나대용이 정경달과 자주 만났던 시기(1599.3.7., 1599.5.7., 1601.10.30.-11.1.)였던 1599년에 개발했던 전선이 바로 쟁선이었고 이는 판옥선과 거북선의 단점을 제거하고 장점을 살린 신형전선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⁵⁰⁾

49) 『선조실록』 1606년 12월 24일.

50) 나대용과 그가 개발했다는 쟁선의 존재와 그 제원에 대해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학술지(『정신문화』 13, 1982)에 등장하는 바다특집 수필(『한국문화와 바다』)에는 조선공학 전문가의 글(김극천, 「조상의 빼어난 조선기술」, 『정신문화』 13, 1982, 133~136쪽)이 실려 있는데, 이 글에서는 이순신의 거북선에 대해 “판옥선의 외각에 철갑을 입히고”, “세계조함사상 철갑선의 시조” 등등, 역사적 사실과 무관한 기술이 등장한다. 당시만 해도 바다특집 수필은 바다에 대한 무지 내지는 바다에 대한 낭만적·문학적 형용이 주를 이루었고, 이순신과 거북선에 대한 얘기는 기본적인 사실마저도 제대로 기술하지 못하였고, 나대용의 쟁선에 대한 얘기는 더더욱

Ⅲ. 유교지식인의 국가·사회적 책임

1592년 봄의 일이다. 신립과 이일을 변방에 파견하여 순시토록 하였다. 이 일은 충청도와 전라도로 가고 신립은 경기도와 황해도로 순시하였다. 한 달이 지나 그들은 돌아왔다. 그러나 그들이 조사해 온 내용이란 것은 고작 활과 화살, 창과 칼 같은 것뿐이었다. 군이나 읍에서는 문서상으로만 무기가 갖추어져 있을 뿐 실제로 필요한 무기는 전혀 없는 상태였다. 게다가 성질이 사납다는 소문이 있던 신립은 사람을 해치면서까지 위엄을 보이려 하였다. 그러자 수령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백성들을 동원하여 길을 닦고 융성한 대접을 베풀었는데, 어떤 대신의 행차보다도 떠들썩했다.

1592년 4월 1일, 두 사람은 서울로 돌아와 임금께 보고했다. 그 무렵 집으로 찾아온 신립에게 내가 물었다. “가까운 시일 내에 큰 변이 일어날 것 같소. 그렇게 되면 그대가 군사를 맡아야 할 터인데, 그레 적을 충분히 막아낼 자신이 있소?” 신립은 대수롭지 않게 답했다. “그까짓 것 걱정할 것 없소이다.” 나는 다시 말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과거에 왜군은 짧은 무기들만 가지고 있었소. 그러나 지금은 조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닌 것 같소.” 그러나 신립은 끝까지 태연한 말투로 대꾸했다. “아 그 조총이란 것이 쏘 때마다 맞는답디까?” 그렇지만 걱정이 된 나는 다시 한 마디를 덧붙였다. “나라에 태평한 세월이 계속되면 병사들은 모두 나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때에 변란이라도 일어나면 속수무책이 될 것입니다. 몇 해가 지나면 우리 병사들도 강해지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참으로 걱정입니다.” 그러나 신립은 내 말은 무시한 채 곧 자리에서 일어섰다.⁵¹⁾

신립과 유성룡이 만나 주고받은 대화, 그 대화 중에 드러나는 신립 장군의 목청 높은 언설, 그 포호병하와 같은 무모함을 놓고 볼 때, 그가 왜군의 조총을 우습게 여기고, 천연의 요새 조령의 지형지물을 이용할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굳이 비로 인해 진흙 밭이나 다름 바 없는 탄금

나올 수 없는 것이었다. 거북선이 철갑선(철갑거북선론)이었다거나 잠수함(잠수함거북선론)이었다는 풍설에 대해서는 이기훈, 「발명왕 이순신과 잠수함이 된 거북선: 민족주의 신화의 형성과 확산」, 『역사비평』 121, 2017, 222~250쪽 참조.

51) 유성룡, 김홍식 역, 『징비록: 지옥의 전쟁, 그리고 반성의 기록』, 서해문집, 2003, 41~44쪽.

대에서 8천의 기마부대로 맞붙어 군사가 전멸했던 것은 그것이 어쩌다 패배한 전투가 아니었음을 방증한다.

그 감당 불가의 정황 속에서, 정경달의 임진왜란에 대한 대응양상, 그리고 정경달을 통해 본 유교지식인의 국가·사회적 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요망된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앞장에서 정경달의 『반곡난중일기』 분석을 통해 그의 임진왜란 대응 양상을 ① 선산부사, ② 통제사종사관, ③ 남원부사, ④ 오위장-접반사-영위사, ⑤ 청주목사, ⑥ 낙향의 시계열별로 정리해보았다. 각 단계의 과정이 정경달의 삶과 삶의 세계를 표상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정경달에 대한 후대의 기억은 ①과 ②에 집중되어있었다. 관심과 논의의 집중도를 가지고 보면 충분히 그럴만한 정황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정경달과 임진왜란을 키워드로 삼아 유교지식인의 자기성찰과 국가·사회적 책임을 묻고 논하는 과정이라면 이를 전체적으로 펼쳐놓고 미시적 천착과 거시적 성찰을 동시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약용이 『반산정씨세고』의 서문에서 정경달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면서 꺼낸 말은 “지키기만 하고 공격하지 않는다면 이는 왜적을 임금에게다가가도록 내버려두는 격이니 왜적을 추격하는 일을 어찌 그만둘 수 있겠는가”라는 말이었다.⁵²⁾ 이는 선산부사 정경달이 당시 왜적을 공략하는 과정에서 시종일관 유념했던 말이기도 했다. 그러나 다가올 전쟁이든 진행형의 전쟁이든 방비책과 전투력을 확보하는 일은 개인의 역량이나 소관사항으로 치부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 정약용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임진왜란은 고려 말기의 왜구가 바람을 타고 갑자기 이르러서 엄습한 것과는 같지 않다. 1586년(선조 19)에 온 왜의 사신 橋康廣은 제양의 기미를 보였고 1591년(선조 24)에 온 平調信은 침략의 기미를 드러냈다. 그리고 趙憲은 초야에서 가슴을 찢고, 黃允吉은 경연에서 성실하게 보고한 적이 있었으며, 조정에서도 역시 변방의 일을 깊이 걱정한 나머지 金晬를 골라서 경상도 관찰사에 제수하고

52) 『與猶堂全書』, 政法集卷24, 「牧民心書卷九/兵典六條/兵典第六條/禦寇」.

이순신을 발탁하여 전라좌도 수군절도사로 내려보내는 등 기미가 이미 발생하였고 화근이 이미 드러났었다. 그런데 어찌하여 돌 하나라도 쌓고 창 하나라도 만들어서 성문에 침입할 왜적에 대한 대비는 하지 않았던가. 그 당시의 일을 나는 들었다. 변방의 사건을 말하면 허풍을 떠다고 하고 군사 일을 말하면 민심을 동요시킨다고 하여, 비변사의 좌석에서는 당황한 얼굴빛으로 서로 돌아보지 않은 적이 없으면서도 밖에 나와 사람들에게 말하기는 태평하다고 하며, 규문 안에서는 귀를 대고 소곤거리지 아니한 적이 없으면서도 밖에 나와 손님에게는 걱정이 없다고 하였고, 지방의 관리들도 그 영향을 받고 그 뜻에 맞추어 날마다 음악이나 연주하며 기생과 즐기면서 “이것이 민심을 안정시키는 방법이다”고 하며, 궁벽한 곳에서 노동일을 하는 사람들도 이미 귀신처럼 당시의 정세를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당시 선산부사로 있었던 정경달[盤谷公]은 그러한 때를 당하여, 그의 뛰어난 재능으로도 역시 돌 하나라도 쌓고 창 하나라도 만들어서 눈앞에 닥친 화역에 대비할 수 없었던 것은 진실로 온 나라에서 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선산부에서만 하라는 법은 없었기 때문이었다. 나중에 정경달이 군사를 징발할 때는 四運의 진법을 적용하고, 적을 방어할 때는 四寨의 장수를 두는 등 그 임기응변은 그와 같이 기묘하였으면서도 임진왜란이 나던 4월 15일 이전에는 손가락 하나 못 놀리고 털 하나 움직일 수 없었던 것은 위에서 싫어하는 것을 아래에서 감히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⁵³⁾

선산부사 시절 정경달이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임금의 어가가 서쪽으로 파천했다는 소식이었다. 관서 땅의 풍상 속에 임금이 피난 가 있는 현실에서 신하된 자는 안일한 일상을 보낼 수 없다는 마음가짐이었다. 정경달이 1592년 5월 17일, 1000여명의 군사를 모집하여 금오산 아래에 진을 치고 왜적을 공략한 것도 임금의 파천 소식을 듣고 나온 대응이었다.⁵⁴⁾ 국가·사회적 재난과 위기 앞에서 정경달은 어떤 대응과 행적을 보였는가. 그 궤적은 곧 그의 인격과 덕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정약용은 선산부사 정경달에 대해 “형조참의는 앞서 선산부사로 있을 적에 임진왜란을 만나, 흩어진 군사를 모아 壘壕를 깊이 파고 복병을 잠복시켜 왜적을 막아 적을 포획한 것이 매우 많았다”고 기록하였고

53) 『與猶堂全書』, 詩文集卷14, 「題盤谷丁公亂中日記」.

54) 『반곡난중일기』 1592년 5월 17일, 9월 17일.

“그가 군사를 징발할 때는 四運의 진법을 적용하고 적을 방어할 때는 四寨의 장수를 두는 등 그 임기응변은 그와 같이 기묘하였다”고 평가하였다.⁵⁵⁾

어쩌면 가장 특징적인 장면은 정경달과 이순신의 만남과 전쟁 대응이었다. 삼도수군통제사 이순신이 먼저 정경달을 알아보았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그리고 사실상 국가가 위난에 처한 특수상황이라 할지라도 이순신이 상소를 올려 정경달을 통제사종사관으로 임명해줄 것을 요청하기란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이었다. 나이는 세 살이 많고, 문과 출신에 급제도 6년을 앞섰던 인물에다가 부사(종3품)까지 지냈던 정경달을, 그것도 선산부사 시절 왜적을 방어/공격하는 과정에서 깊은 병을 얻어 고향 장흥 땅에서 요양 중이던 정경달을 자신의 종사관으로 삼고자 했던 것은, 통제사 이순신의 위치에서도 종사관 정경달의 처지에서도 쉽지 않은 선택과 결단이었다. 물론 그것은 선산부사 정경달의 활약상-사채전법, 둔전경영, 군량조달 등의 업적과 성과를 높이 산 결과였다. 1594년 2월부터 1595년 1월까지 만 1년 동안 통제사종사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정경달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였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훗날 당상관 정3품 통정대부에 올랐다. 정경달이 통제사 종사관으로 활동하던 당시 한산도의 “수군과 격군은[舟師格軍] 굶주린 지 이미 오래여서[飢餓已久] 얼굴에 핏기가 없어서[面無人色] 한두 달을 넘기지 못하고 모두 죽을 것[不過一二月將盡死]”이며, “지난 해 사망한 병졸의[前年死亡之卒] 해골이 해변에 쌓였다[骸骨堆於海邊]”는 참혹한 상황⁵⁶⁾에서 삼도의 수군을 먹여 살려야 할 통제사 이순신에게 종사관 정경달의 역할은 이순신의 전쟁을 성공으로 이끄는 큰 힘이 되었다. 여수의 돌산도, 고흥의 도양장, 절이도, 완도의 고이도, 해남의 황원목장에 둔전을 설치하고, 백성들을 불러 모아 둔전을 짓게 하였는데 그 중요한 역할을 종사관 정경달이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다.

정경달이 임진왜란을 겪는 과정에서 그가 마지막 벼슬인 청주목사로

55) 『與猶堂全書』, 詩文集卷13, 「盤山丁氏世稿序」, 詩文集卷14, 「題盤谷丁公亂中日記」.

56) 『西厓集』, 卷8, 「措置防守事宜啓[乙未]」.

있을 당시의 사례는 명나라 장수·참모 앞에서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었던 유교지식인의 초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왜군을 공격한다는 공동의 과제를 앞에 두고 벌어지는 명나라 장수와 군대의 횡포는 그에게 심대한 고뇌와 좌절을 겪게 만들었다. 정유재란 이후 정경달의 역량은 전혀 발휘될 수 없었고 그야말로 ‘하늘의 군대’의 횡포 앞에서 존재의 이유와 의미를 잃고 말았다. 선산부사 시절의 정경달이나 통제사종사관 시절의 정경달이었다면 쉽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이처럼 그의 내면을 뒤흔들고도 남을 크기의 사건으로 전개되고 말았다. 정경달이 청주목사에서 파직된 이후의 상황을 중심으로 정치사회적 정황과 맥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임진왜란에 대한 대응 양상, 그리고 왜란 이후의 대응 방식을 종합하여 논의하는 가운데 조선이라는 유교국가의 시스템에 대한 얘기,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통치 권력의 문제에 대한 통찰과 성찰이 필요하다 고 생각한다. 정경달-유성룡-이원익-이항복-이덕형으로 이어지는 논점에 대해 유성룡을 중심으로 논하고, 이어서 정경달-이순신-나대용으로 이어지는 논점에 대해 나대용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순서로 유교지식인의 사명과 책임 문제를 논하고자 한다.

임진왜란은 국가의 운명과 존립에 관한 거대한 질문을 던진 것이었으나 유교지식인이나 백성 모두가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지는 않다. 왜란 당시에는 정신을 못차렸고, 왜란 이후에도 이를 교훈으로 삼지 못하였다. 각자의 위치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과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 왜란 당시 선조의 임금노릇도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요동내부책과 호종담론이 이를 방증한다. 그것이 이순신의 전쟁을 극단의 상황으로 몰아넣고 심지어 이는 국가 존폐 위기로 직행할 수도 있는 문제를 낳았다. 칠천량전투로 조선 수군은 거의 사라진 마당에서, 임금은 통제사 이순신에게 수군을 해체한 후 충청도로 와서 훗날을 도모하라고 명하였다.⁵⁷⁾

57) 유성룡의 언어로 말하자면, 수군을 폐기한다는 선조의 전략은 국가 존폐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무책임하고도 위태로운 발언이었다. 왜적이 물러가거나 그렇지 않거나를 막론하고 이순신의 전쟁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수군은 특히 왜적의 침입으로부터 국가를 지키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전력이었다(『西厓集』, 卷8, 「措置防守事宜啓[乙

그야말로 요동내부책의 연장선에서 나올법한 발언이었다. 『선조실록』의 “만약 이순신을 1596년과 1597년 연간에 통제사에서 체직시키지 않았더라면[若使舜臣丙丁年間不遞統制之任] 어찌 칠천량전투의 패전을 가져왔겠으며 전라도와 충청도가 왜적의 소굴이 되었겠는가[則豈致閑山之敗沒而兩湖爲賊之窟乎]”라고 애석해했던 사관의 지적을 빠져리게 받아들이는 자는 별로 없었다.⁵⁸⁾

전란 내내 도성을 버리고 도주하기 바빴으며, 압록강 건너 요동으로 도망가려는 요동내부책(遼東內附策)⁵⁹⁾을 주창했던 선조는 호종담론(扈從談論)을 덧붙여 그의 회한한 생존 논리를 보강하였다. 임진왜란에 대한 성찰과 기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것이다. 일부 간신들은 선조의 그런 호종담론을 발판으로 삼아 터무니없는 말로 정적에 대한 모함을 일삼는 배제-배타의 논리를 계속 재생산하였다. 말로 모함을 일삼는 자들이야말로 그것은 분명 임금을 속이고 나라를 속이고 백성을 속이는 자

未]).

58) 『선조실록』 1598년 11월 27일.

59) 요동내부책(遼東內附策)은 임진왜란 때 선조가 조선을 버리고 만주로 넘어가려는 계책을 말한다. 선조는 “만주로 넘어가는 것이 본래 나의 뜻이다[內附本予意也]”고 하였다. 유성룡은 “안 됩니다[不可]. 어가가 우리 국토 밖으로 한 걸음만 떠나면[大駕離東土一步] 조선은 우리 땅이 되지 않습니다[則朝鮮非我有也]”라고 극력 반대하였다. 그리고 선조의 요동내부책을 제안했던 이항복에 대해 유성룡은 “어떻게 경솔히 나라를 버리자는 의논을 내놓는가[何爲輕發棄國之論乎]. 자네가 비록 길가에서 임금을 따라 죽더라도[君雖從死於道路] 궁녀나 내시의 충성밖에 되지 못할 것이다[不過爲婦寺之忠]. 이 말이 한번 퍼져나가면[此言一出] 인심이 무너질 것이니[人心瓦解] 이를 누가 수습할 수 있겠는가[誰能收拾]”라고 책망하여 이항복의 사과를 받아냈다(『선조수정실록』 1592년 5월 1일). 그렇다고 해서 선조가 유성룡의 말을 들으려했던 것은 아니다. 선조가 요동내부책을 접은 것은 명나라의 싸늘한 반응 때문이었다. 선조의 요동내부책을 접한 명나라에서 “장차 선조를 만주 관전보의 빈 관아에 거처토록 한다[將處本國於寬奠堡空廡]”는 계획을 내놓았다. 사실상 선조를 유배시키려 했던 것이다. 결국 선조는 “의주에 오래 머물기로 작정[上遂爲久住義州之計]”하였다(『선조실록』 1592년 6월 26일). 선조의 요동내부책, 호종담론, 이순신에 대한 대응방식을 통해 군주성학의 버거움과 무망함을 읽는다. 선조는 외부의 침략보다도 내부의 위협을 더 두려워했다. 퇴계 이황의 『성학십도』, 율곡 이이의 『성학집요』가 선조에게는 그저 헛것에 불과했다.

들이었다.⁶⁰⁾

전쟁이라는 절체절명의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는 정치 논리를 말하자면, 갑옷 입은 군사[介者]는윗사람에게도 절하지 않았다. 주(周)의 위료자(尉繚子)는 “남이 힘을 다하도록 만들려면 예를 따지지 말아야 하는 까닭에, 옛날 갑옷과 투구를 갖춘 군사는 윗사람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 병사들을 번거롭게 해 놓고도 그들이 힘을 다해 죽기를 바라는 것은 고금에 없는 일이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성호 이익은 “군사란 죽으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전송할 때 천자로서도 그들을 위해 꿇어앉아 전차를 밀어 보냈다. 그와 같이 하지 않으면 군사들의 충성심을 감동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고 해석하였다.⁶¹⁾ 하지만 임진왜란 당시 선조에게는 그러한 해아리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 성호 이익은 이어서 말하기를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의 일로 말한다 하더라도 충무공 이순신[李忠武]은 큰 공을 세웠어도 형을 받고 귀양 가게 되었다. 진실로 서에 유성룡[柳西厓] 같은 이가 맹세코 발탁하지 않았더라면 개천 속에서 굶어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⁶²⁾

정경달-이순신-나대용에 대한 얘기를 끝으로 얘기를 마무리짓고자 한다. 그것은 다시 왜란에 대한 얘기가 될 것이다. 정경달의 『반곡난중일기』를 통해서도 임진왜란이 끝날 무렵의 정치적 지형도를 읽어낼 수 있

60) 단적인 예를 우계 성혼의 경우에서 찾을 수 있다. 1592년 4월 30일 새벽 도성을 버리고 피난길에 나선 선조가 임진나루를 지날 때 간신 이흥로가 강기슭의 가까운 작은 마을을 가리키며 “이곳이 바로 성혼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此是成渾之廬]”라고 하였다. 이를 기억해둔 선조는 1594년에 성혼의 면전에서 “어가가 피난길에 나서 [車駕避難] 경의 집 앞을 지나갔을 때[由卿廬舍之前] 경은 달려와서 문안하지도 않았다[而卿不來問]”고 문제 삼았다. 이는 차후 성혼이 모함을 받고 죄를 얻게 된 계기로 작용하였다. 정인홍도 상소문에서 “어가가 집 앞을 지나갔는데도[大駕過廬] 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다[閉門不出]”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임진나루는 성혼이 거주하는 쇠내와는 15리 정도(半息程)의 거리여서 성혼이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닌 이상 어가가 지나는 것을 알 수 없는 일이었다(『牛溪集』, 年譜補遺卷3, 「儒生徐宗震等請勿輟從祀疏畧[朴泰輔製]」). 이처럼 터무니없는 말로 모함을 일삼는 자들이야말로 실은 임금을 속이고 나라를 속이고 백성을 속이는 자들이었다.

61) 『星湖僊說』, 卷23, 「介者不拜」.

62) 『星湖僊說』, 卷23, 「忌功」.

다. 명나라 일각에서는 조선을 직할통치하거나 분할통치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선조는 분할통치를 하더라도 왕권만 보장되면 문제없다는 입장이었다.⁶³⁾ 선조가 상상했던 명나라 군대와 정경달이 남원부사나 청주목사로 있으면서 겪었던 명나라 군대는 전혀 다른 군대를 얘기하는 것처럼 보인다. 당시 국제 정세를 누구보다도 잘 꿰뚫고 있던 유성룡은 이미 명과 왜가 화의를 결심했다면 조선이 아무리 화의를 반대해봤자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⁶⁴⁾ 복인 권력에 의해 기록된 『선조실록』에 의하면 유성룡은 나라를 그르친 원수, 나라를 망친 역적이거나 다름없는 존재였다. 유성룡이 쓴 『정비록』과 이순신이 쓴 『이충무공전서』가 없었더라면 유성룡의 명예는 회복되기 어려웠을 것이다.⁶⁵⁾ 그런 의미에서 정경달의 『반곡난중일기』는 유성룡과 이순신의 임진왜란에 대한 기록과 기억의 역동성을 되살리는 보정판이 될 수 있다.

정경달이 청주목사에서 파직된 후 고향에서 3년여를 지내는 동안 특기할만한 기록으로 나대용을 가끔 만났다는 기록일 것이다. 정경달과 나대용의 만남이 특별한 것은 통제사 이순신의 종사관으로 많은 성과를 냈던 정경달도 그렇지만, 나대용은 이순신의 전쟁, 특히 거북선을 통한 왜군과의 전쟁에서 빠질 수 없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이순신의 죽음 이후에도 나대용은 1599년 거북선보다 더 성능이 뛰어난 전함 개발에 성공했다. 정경달과 나대용의 만남은 전함 개발에 성공했던 무렵의 만남

63) 이성무, 『선비평전: 우리 시대에 던지는 오백년 선비의 역사』, 글항아리, 2011, 219~220쪽.

64) 월천 조목은 영의정 유성룡이 왜와 화친을 주장한다는 말을 듣고 편지를 보내어 “상국께서 평생 성인의 글을 공부하여[相國平生讀聖賢書] 터득한 바가 다만 이 주화오국 네 글자란 말입니까[所得只此講和誤國四字耶]”라고 비판했다(『月川集』, 附錄, 「嘉善大夫工曹參判月川趙先生神道碑銘[并序]」). 이에 대해 유성룡은 “주화오국 네 글자는[至於主和誤國四字] 저 역시 반성해 보았지만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生亦自省無是].……그 가운데는 처음부터 반점만큼의 ‘화’자도 없습니다[此中初無半點和字矣]”고 밝혔다(『西厓集』, 卷10, 「答趙士敬[丁酉]」). 주화오국의 문제에 대해서는 『선조실록』 1597년 10월 16일.; 『선조실록』 1604년 11월 12일.; 『선조실록』 1607년 5월 13일(前議政府領議政豐原府院君柳成龍卒記) 추가 참조.

65) 이성무, 앞의 책, 219~220쪽.

이기도 했다. 임진왜란에서의 수군의 승리는 대형 전투선인 판옥선과 그 안에 탑재된 각종의 총통 등 화약병기에 힘입은 바 큰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승리의 축적 과정을 통해 임진왜란 이후 조선수군의 전투선은 더욱 거대화되고 무기체계도 정비되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⁶⁶⁾ 하지만 나대용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것이 판옥선(板屋船)이든 거북선(龜船)이든 쟁선(鎗船)이든 왜란이 끝나고 나라가 평화로워지자 어떤 대비책도 강구하지 않은 채 사실상의 방치상태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사실, 특히 나대용의 신분이 미천하다 하여 사람들이 그를 실답게 여기지 않아 다시는 전선 건조에 유의하지 않았고 그 설계도마저 사장되고 말았다는 사실에 대해 심각한 반성과 비판이 따라야 할 것이다. 거북선의 위대성을 진정 말하 wollten 이순신의 사후, 임진왜란이 끝난 후, 나대용이 개발했던 쟁선에 대한 관심과 대응으로 이어졌어야 했다.⁶⁷⁾ 나대용의 주장과 대응에 대한 국가의 무관심은 정치적 리더십과 역사적 교훈의 부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나대용의 쟁선은 판옥선과 거북선의 단점과 한계를 극복하면서 기동력을 높이고 적선에 대한 파괴력을 높일 수 있는 전선으로 거듭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대책과 지원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백성이 유린당하고 국토가 초토화되는 참상을 겪고서도 이를 교훈으로 삼지 못하고 제대로 된 대비책을 강구하지 못했던 나라의 현실, 그로부터 300년 후에 결국 일본에 의해 나라가 패망한 현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분단과 분열의 진행형 고통을 감안한다면 임진왜란은 1592년에 시

66) 박진철, 「고문서로 본 17세기 조선 수군 전선의 무기체계」, 『영남학』 16, 2009, 44 9~481쪽.

67) 거북선에 대해 금급증이 많았던 정조는 이를 과거시험 문제로 출제한 적이 있다. 정조는 시험문제를 통해 “어찌하여 우리나라에는 전선의 제도에 대하여 아직도 황무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가.……삼면이 바다인 나라에서 왜구[海寇]에 대한 방비는 다른 나라보다 갑절 이상 힘써야 하는데도 소루하고 지리멸렬한 것이 예로부터 이러했으니, 뜻있는 사람들이 어찌 안타까워하지 않겠는가……”라고 한탄하였다(『與猶堂全書』, 詩文集卷9, 『戰船策』). 정조의 한탄 섞인 지적 어디에도 판옥선-거북선-쟁선으로 이어지는 전선의 무기체계와 그 위력에 대한 논의조각들을 찾을 수 없다.

작하여 1598년에 끝난 전쟁이 아니었다. 어쩌면 임진왜란은 아직도 진행형이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른다.

침략과 지배의 메커니즘은 기만(속임수)과 폭력(무력)이다. 한국은 일본의 기만 속에 한발짝 한발짝 학정으로 빠져들었고, 강화도조약, 청일전쟁, 러일전쟁, 을사늑약, 정미칠조약, 경술국치의 순서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자주-부강-행복의 보장과 증진이라는 사기술에 넘어갔다. 그 사기술에 넘어간 자들은 일본의 기만과 폭력을 ‘선의’로 규정했다. 한국은 스스로 강해지기보다 강국의 힘을 빌리려고 했다. 그러나 강국에 의지하고자 했던 가련한 왕국에 행운이 찾아올 리는 만무했다. 왕실은 밖으로부터 오는 침략보다도 안으로부터의 왕권에 대한 위협에 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300년 전의 선조 때와 달라진 게 전혀 없었던 것이다. 준비론 계열의 대응(점진, 개조, 수양, 실력양성)이 아닌 독립론 계열의 대응(급진, 무장투쟁)을 전적으로 감행하여 전민족적 반항운동을 일으켰다면 감히 일본이 왕이나 몇몇 대신을 위협하거나 매수하는 방식으로 소위 보호조약을 강요하지는 못했을 것이다.⁶⁸⁾

IV. 맺음말

정경달에 대한 관심 및 연구는 비교적 늦은 시기인 198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연구의 집중력이나 밀도가 그리 높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 가운데 정경달은 주로 장흥의 역대인물, 역사인물로 부각시켜 말하는 경향을 접할 수 있다. 정경달의 본관은 영광이었다는 사실도 당시 유교지식인들의 마음의 고향을 포착하기 위한 하나의 논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정경달은 고향 장흥에 내려가면 상산 본가와 회령 별장을 오가며 휴양의 시간을 보냈는데, 지금 상산은 장흥군, 회령

68) 이기백, 「한일관계의 역사적 검토」, 『이대학보』 1962년 3월 26일; 이기백, 『민족과 역사』, 일조각, 1971, 219~224쪽 재수록 참조.

은 보성군이라는 점, 그리고 여기에 통제사 이순신의 궤적이 역학으로 작용하면서 장흥에서도 보성에서도 정경달을 기리는 사업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특징적인 장면이다. “영남 속의 호남인”을 논하는 관점으로 말하자면, 선산부사 정경달의 사채전법은 왜적 공략법으로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고 이는 정경달이 통제사종사관으로 추천받는 계기로 작용했음을 유의하는 가운데 정경달은 선산의 역사인물로도 크게 기억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반곡난중일기』의 전체적 분석을 통해 임진왜란에 대응했던 유교지식인 정경달의 국가·사회적 책임, 그리고 그 안에서도 미시적으로 갈리는 심적 고뇌와 좌절을 읽어내면서 “전쟁 속의 유교지식인”의 정체성을 포착하는 작업은 또다른 연구접근법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여러 방증자료의 확보와 자료 간의 교차검토를 통한 논의의 심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유교지식인 정경달의 국가·사회적 책임에 대한 연구의 심층을 보여줄 수 있기 위해서라면, 정경달을 문중사학/향토사학의 영역으로부터, 그리고 선점/주도권 논쟁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필요가 있다. 전쟁 상황에서 국난의 위기 앞에서 유교지식인은 어떤 대응을 보일 수 있었는가, 그 국가·사회적 책임의 실체를 들여다보는 작업은 역사인물 탐구에서 본연적 중요성을 갖는다. 그동안 유교·유학사상 연구에서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을 연구하면서 가문과 문중을 빚낸 선조, 향토와 고장을 빚낸 역사인물을 발굴하여 이를 기리고 기억하는데서 만족하는 경우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일반적인 사항을 말하자면, 유교지식인들은 그들이 누리는 영광은 개인과 가족과 가문의 범주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지만, 그들이 개인과 가족과 가문의 범주를 넘어서는 국가·사회적 사명과 책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대응을 보여주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한 사회일반의 굴절된 욕망체계를 마주하면서, 정경달의 삶과 죽음의 궤적은 어떤 것이었고, 그의 국가·사회적 책임은 무엇이었는지를 제대로 묻고 답하는 과정, 그 빛을 제대로 드러내는 연구는 앞으로의 진행형 과제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식민지경험과 광복이후의 역사 체험을 통해서도 국가·사회적 일체감과 정체성을 가질만한 체험을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다. 한국인은 이미 조선시대 이래, 가족을 넘어서는 자아를 제대로 체험하지 못했던 것이 분명하다. 신독-위기지학-성인지학-종신사업에 힘쓰는 삶의 존재나 국가·사회를 위한 지도자를 만나기도 그리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러한 각박한 역사적 현실과 정황 앞에서 정경달에 대한 독법을 제대로 가져간다면, 그럴 요량이라면 정경달의 임진왜란 당시의 활동 궤적, 그의 심적 고뇌와 좌절을 읽어내는 가운데, 국가·사회적 책임의 문제를 주제로 삼는 연구의 심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이 논문은 2021년 4월 3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1년 5월 17일부터 6월 3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1년 6월 4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 『論語』, 『盤谷遺稿』, 『李忠武公全書』, 『牛溪集』, 『月川集』, 『西厓集』, 『霽峯集』, 『蒼石集』, 『溪陰集』, 『星湖僊說』, 『與猶堂全書』, 『研經齋全集』, 『林下筆記』.
- 신해진 역, 『반곡 난중일기(상·하)』, 보고서, 2016.
- 박중우 역, 『반곡 정경달 시문집(1·2)』,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2017.
- 김경숙, 「임진왜란 초기 지방관의 수토활동: 선산부사 정경달 형제의 활동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65, 2013, 131~162쪽.
- 김극천, 「조상의 빼어난 조선기술」, 『정신문화』 13, 1982, 133~136쪽.
- 김성우, 「임진왜란 시기 구미지역의 참상과 전쟁의 극복양상」, 『역사학보』 230, 2016, 1~37쪽.
- 김형수, 「임란 직후 선산지역 여현학단의 활동」, 『남도문화연구』 38, 2019, 143~172쪽.
- 김 훈, 『칼의 노래』, 생각의 나무, 2001.
- 박인호, 「임진왜란기 구미 지역의 사족 동향과 의병 활동」, 『국학연구』 30, 2016, 369~410쪽.
- 박중우, 「반곡 정경달의 한시 연구」, 『남도문화연구』 32, 2017, 207~227쪽.
- 박진철, 「고문서로 본 17세기 조선 수군 전선의 무기체계」, 『영남학』 16, 2009, 449~481쪽.
- 박현규, 「임진왜란 시기 남원 소재 명군 유적과 작품 고찰」, 『중국어문학』 84, 2020, 71~92쪽.
- 유보전, 「대의명분론과 임진왜란: 명왕조의 시각으로 본 임진왜란」, 『사회과교육』 51(4), 2012, 15~26쪽.
- 유성룡, 김홍식 역, 『징비록: 지옥의 전쟁, 그리고 반성의 기록』, 서해문집, 2003.
- 이기백, 『민족과 역사』, 일조각, 1971.
- 이기훈, 「발명왕 이순신과 잠수함이 된 거북선: 민족주의 신화의 형성과 확산」, 『역사비평』 121, 2017, 222~250쪽.
- 이성무, 『선비평전: 우리 시대에 던지는 오백년 선비의 역사』, 글항아리, 2011.

- 이원희, 「정유재란기 칠천량해전의 패인 분석」, 『군사연구』 139, 2015, 289~317쪽.
- 정완희·민승식, 「칠천량해전과 명량해전의 유형전투력 분석」, 『군사』 91, 2014, 261~290쪽.
- 제장명, 「정유재란기 명량해전의 주요쟁점과 승리요인 재검토」, 『동방학지』 144, 2008, 207~253쪽.
- 정해은, 「임진왜란 초기 경상도 수령의 동향과 의병 지원 활동」, 『조선시대사학보』 70, 2014, 133~168쪽.
- 정해은, 「임진왜란 발발 직후 이순신의 전쟁 대응에 대한 검토: 1차 출전 과정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83, 2017, 55~87쪽.
- 정호훈, 「조선후기 당쟁과 기록의 정치성: 기축옥사 희생자의 가해자 공방과 관련 하여」, 『한국사학사보』 33, 2016, 151~186쪽 참조.
- 홍성구·조영현, 「임진왜란 학술대회를 다녀와서」, 『명청사연구』 47, 2017, 287~297쪽.
- Spence, J. D., *Emperor of China: Self-Portrait of K'ang-hsi*. New York: Alfred A. Knopf, 1974, 이준갑 역, 『강희제』, 이산, 2001.

Abstract

Records and Memories of Imjinwaeran by Jeong Gyeong-dal, Who Served as Seonsanbusa and Samdosuguntongjesa's Officer

Park, Kyoong-seop

The research on the world of Jeong Gyeong-dal's knowledge and life can be a force to precisely interpret the Confucian study theory, which takes Sugi-Chiin and Yipshin-Yangmyeong as its essence. Jeong Gyeong-dal's achievements while serving as a Seonsanbusa during the Imjinwaeran of 1592, and as an officer of the Samdosuguntongjesa can be said to be an important scene showing the reality of Confucian intellectuals' national and social responsibility. It is worth introducing Yi Soon-shin, Na Dae-yong, Yoo Seong-ryong, Yi Deok-hyeong, Yi Won-ik, and Yi Hang-bok, who were directly or indirectly related to him and his performances in the Imjinwaeran at that time through *Bangok-Nanjoong-Ilgil*. It is necessary to firmly ask the issue of the national and social responsibility of Confucian intellectuals through the continuous reconstruction of the historical records and memories related to Imjinwaeran of Jeong Gyeong-dal. Since the Imjinwaeran, in the face of internal and external crises and conflicts in Korean society, it is necessary to reflect on whether the inappropriate and unreasonable responses and related memories have led our distorted

perceptions. Living in Korean society, if there is something we should be aware of through Jeong Gyeong-dal's record, we should be able to show concern and reflection on responsibility in the face of national and social crises.

keywords :

Jeong Gyeong-dal, Yi Soon-shin, Na Dae-yong,
Bangok-Nanjoong-Ilggi, national and social responsibility.

